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귀중

2011년 정신건강에 관한 인식조사 보고서

2011. 1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19 한미빌딩 2-7층(본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2 우남빌딩 3층(별관)
전 화 : 02-3014-0085/0098
팩스번호 : 02-3014-1050
홈페이지 : www.hrc.co.kr

목차

제 1 장. 조사개요	4
1. 조사배경 및 목적	5
2. 조사설계	6
3. 조사내용	7
4. 응답자 구성	9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10
제 3 장. 조사결과	16
1.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17
1)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른 위험군 분류	17
2.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	19
1) 사회적 요인 -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	19
2) 사회적 요인 - 경제적 문제	21
3) 관계적 요인 -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23
4) 관계적 요인 - 고민 상담자 부재 문제	25
5) 스트레스 관리 요인 -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	27
6) 스트레스 관리 요인 -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문제	29
7) 스트레스 해소 요인 - 우울한 기분 때문에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여부 ..	31
8) 스트레스 해소 요인 - 대인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 선호 여부	33
3. 우울증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35
1) 우울증 경험 유무	35
2)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경험	37
3)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대상	39
4)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하지 않은 이유	41

4. 음주문제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43
1)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경험	43
2)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험	45
3)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험	47
4)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경험	49
5) 음주 관련 도움 요청 경험	51
6) 음주 관련 도움 요청 대상	53
5. 자살 시도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54
1) 자살 생각 경험	54
2) 자살 시도 경험	56
3) 자살 시도 시 도움 요청 경험	58
4) 자살 시도 시 도움 요청 대상	59
6. 스트레스, 음주, 우울증 등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60
1) 스트레스를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60
2)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62
3) 우울증을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64
7.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및 이용의향	66
1)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66
2) 정신건강에 관한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의향	68
3) 정신건강 관련 이용할 의향이 있는 서비스 종류(중복응답)	70
4)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 인지 여부	72
5) ‘블루터치’ 를 접하게 된 경로(중복응답)	74
8. 정신질환자 수용 관련 태도	76
1)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수용에 대한 태도	76

부록. 조사결과표/ 조사설문지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설계
3. 조사내용
4. 응답자 구성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최근 산업화, 세계화, 경제위기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임. WHO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5천만 정도가 정신 장애를 앓고 있으며, 전 세계 질환에 의해 10대 장애 중 정신질환이 5개나 포함됨.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심각하여 신경 정신 질환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질병 부담은 1990년에 10.5%에서 2020년에 14.7%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김은주, 2006).
- 우리나라 역시 정신질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에 대한 정신질환 일 년 유병률이 17.1%(약264만명)임.
 -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고도 12.9%임.(보건복지부,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이는 200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당시 일 년 유병률이 8.4%였던 것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는 2006년 한 해 동안 정신질환자의 11.4%만이 의사, 정신과의사, 기타 정신전문가에게 치료 및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정신질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율은 낮음. 이러한 배경으로 국내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알코올 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사업, 자살 예방 센터 등으로 확대됨. 최근 정신보건기관 및 관련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이용실태조사 및 관련 분야의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조사는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인지도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스트레스 요인 별 체감수준은 어떠한지 △우울증, 자살충동, 알코올 문제 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을 알고,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2.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5-65세 남녀
표본크기	1,000명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CATI -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표본추출	2010년 12월 31일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 3.1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편집(Editing) 및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쳐서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해 분석
조사기간	2011년 12월 8일 ~ 2011년 12월 16일

3.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스트레스 관련 실태	- 직장/가정/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 정도 - 대인 관계 관련 스트레스 정도 - 고민 상담자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 화와 같은 감정 조절 관련 스트레스 정도 -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동석자 없는 TV 시청, 인터넷 선호 여부 - 기분 전환을 위한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여부
우울증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2주 이상 기분이 우울하여 의욕이 없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사도 못한 경험 유무 - 기분이 우울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 경험 - 기분이 우울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 대상 - 기분이 우울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본인의 음주 문제 경험 유무	-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경험 유무 -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험 유무 -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험 유무 -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경험 유무
음주 관련 도움 요청 대상	- 음주와 관련한 도움 또는 상담 요청 경험 - 음주와 관련한 도움 요청 대상

구 분	내 용
자살 시도 및 도움 요청 대상	●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실제로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경험 유무 ● 실제로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 경험 ● 실제로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 대상
스트레스 /음주/우울증 을 질병으로 인식	● 스트레스를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 우울증을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및 이용의향	●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이나 진단 등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의향 ● 정신건강 관련 이용할 의향이 있는 서비스 종류(중복응답) ●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 인지 여부 ● ‘블루터치’ 를 접하게 된 경로(중복응답)
정신질환자 수용 관련 태도	●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수용에 대한 태도

4. 응답자 구성

Base=전체		사례수 (명)	계(%)
성	별	(1000)	100.0
성	남 자	(499)	49.9
	여 자	(501)	50.1
연 령	15 - 19 세	(84)	8.4
	20 대	(202)	20.2
	30 대	(239)	23.9
	40 대	(222)	22.2
	50 대	(192)	19.2
	60 세 - 65 세	(61)	6.1
거 주 지 역			
도심/ 서북지역		(174)	17.4
동 북 부 지 역		(318)	31.8
남 부 지 역		(339)	33.9
강 남 3 구		(169)	16.9
학 력	중 졸 이 하	(82)	8.2
	고 졸	(478)	47.8
	대 재 이 상	(440)	44.0
직 업			
사무/관리/전문직		(310)	31.0
영업/판매/서비스직		(126)	12.6
생산/기술/노무직		(71)	7.1
자 영 업		(98)	9.8
학 생		(160)	16.0
주 부		(182)	18.2
무직/퇴직/기타		(51)	5.1
모 름 / 무응답		(2)	0.2
월 가 구 소 득			
99 만 원 이 하		(29)	2.9
100- 199 만 원		(106)	10.6
200- 299 만 원		(205)	20.5
300- 399 만 원		(191)	19.1
400- 499 만 원		(170)	17.0
500 만원 이 상		(254)	25.4
모 름 / 무응답		(45)	4.5
경 제 수 준			
상		(39)	3.9
중		(748)	74.8
하		(212)	21.2
모 름 / 무응답		(1)	0.1
혼 인 상 태			
미 혼		(365)	36.5
기 혼		(598)	59.8
기 타		(37)	3.7
신체적건강상태			
총 은 편		(491)	49.1
보 통		(424)	42.4
총 지 않 은 편		(85)	8.5
정신적건강상태			
총 은 편		(604)	60.4
보 통		(337)	33.7
총 지 않 은 편		(59)	5.9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3.7
고 위 험 군		(340)	34.0
위 험 군		(558)	55.8
저 위 험 군		(65)	6.5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1.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및 요인별 체감수준

◎ 스트레스 체감 수준이 매우 높은 초위험군은 3.7%임.

- 스트레스 체감 수준이 매우 높은 '초위험군'은 3.7%, '고위험군'은 34.0%, '위험군'은 55.8%, '저위험군'은 6.5%임.
- 초고위험군 비율은 2009년 조사 결과와 동일하며, 고위험군은 1.1%p, 위험군은 1.3%p 증가하였음. 반면, 저위험군은 2009년에 비해 2.4%p 감소하였음.

구분	2011년		2009년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1) 초고위험군	(37)	3.7	(37)	3.7
(2) 고위험군	(340)	34.0	(329)	32.9
(3) 위험군	(558)	55.8	(545)	54.5
(4) 저위험군	(65)	6.5	(89)	8.9

◎ 4가지 스트레스 위험 요인 중 사회적 요인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음.

(단위: %)

구분	2011년 그렇다	2009년 그렇다	차이 (%p)
사회적 요인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59.3	59.3	-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47.3	45.4	+1.9
관계적 요인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30.7	29.0	+1.7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22.8	21.6	+1.2
스트레스 관리 요인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16.4	17.5	-1.1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편이다	24.1	27.8	-3.7
스트레스 해소 요인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12.9	13.1	-0.2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	26.6	24.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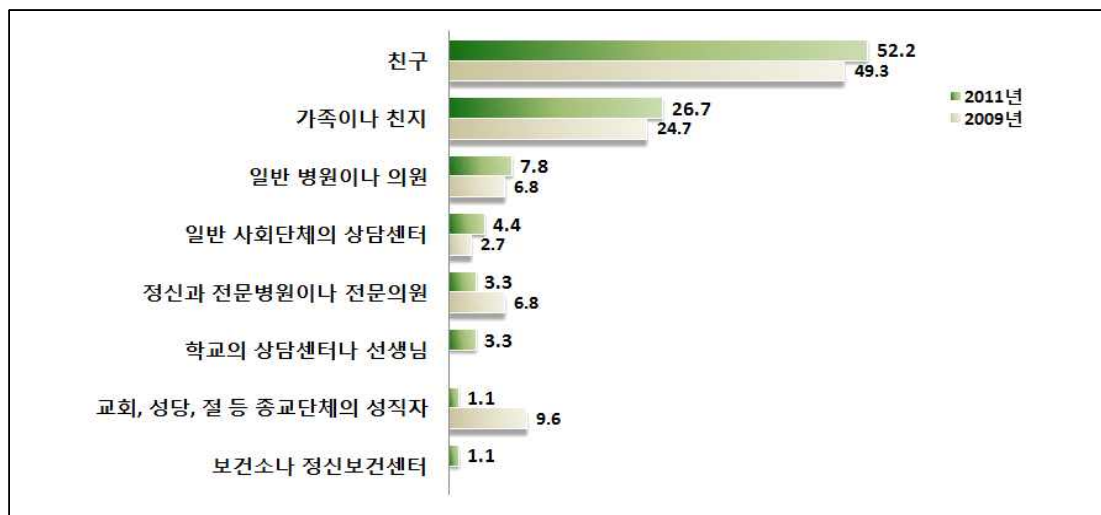
-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로 인해 59.3%,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47.3%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함.
- 관계적 요인 중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30.7%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22.8%가 '심각한 고민을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함.
- 스트레스 관리 요인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가 있다'에 16.4%,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스트레스를 풀어내지 못하는 편이다'에 24.1%가 그렇다고 응답함.
- 스트레스 해소 요인 중에서는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에 12.9%,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을 선호한다'에 26.6%가 그렇다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2009년에 비해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수준이 증가하였음.

2. 우울증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 금년에 우울증을 경험한 응답자 260명 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90명(34.6%)임.

- 친구(52.2%)에게 가장 많이 도움 및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지(26.7%), 일반병원이나 의원(7.8%)등의 순임.
-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유로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라는 응답이 56.5%로 가장 많았음.

(단위: %)



3. 음주문제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 ◎ 본인 스스로 음주 관련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 중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다'가 3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29.3%)고 응답함. (단위: %)

구분	2011년 그렇다	2009년 그렇다	차이 (%p)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다	37.8	31.5	+6.3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29.3	25.1	+4.2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10.2	7.9	+2.3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3.9	2.3	+1.6

- 2009년에 비해 응답 값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다'의 경우, 2009년에 비해 6.3%p 증가함.

- ◎ 위의 4 문항에 '그렇다' 고 응답한 개수는 아래와 같음.

구분	2011년		2009년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0개	546	54.6	615	61.5
1개	210	21.0	178	17.8
2개	147	14.7	138	13.8
3개	80	8.0	62	6.2
4개	17	1.7	7	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 ◎ 본인의 음주관련 문제 중 2개 이상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44명임.

- 본인의 음주관련 문제가 2개 이상인 응답자 244명 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우는 41명이고, 2009년에 비해 1.6%p 증가함.
- 도움 받은 대상으로는 '친구'(25명, 61.0%), '가족이나 친지'(5명, 12.2%), '일반 병원이나 의원'(4명, 9.8%) 등의 순임. '친구'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응답은 2009년에 비해 25%p가 증가한 반면, '가족이나 친지'에게 도움을 요청한 응답은 22.8%p 감소함.

4. 자살 시도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 ◎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한 응답자는 239명(23.9%)이었으며, 이 중 구체적으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4명임.
 - 자살을 생각한 응답자는 2009년 보다 6.4%p 증가한 반면, 실제로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응답은 2009년 보다 0.9%p 증가함.
- ◎ 자살 시도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응답자는 7명이며, '친구'와 '정신과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각각 3명(42.9%)로 가장 많음.
 - 2009년에는 자살과 시도 시 '가족이나 친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2011년에는 '친구'와 '정신과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많음.

5. 스트레스, 음주, 우울증 등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 ◎ 응답자 대부분이 스트레스 및 과도한 음주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음. (단위: %)

구분	2011년 그렇다	2009년 그렇다	차이 (%p)
스트레스도 심각한 질병이다	88.4	88.1	+0.3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도 질병에 해당한다	91.8	91.6	+0.2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92.5	89.2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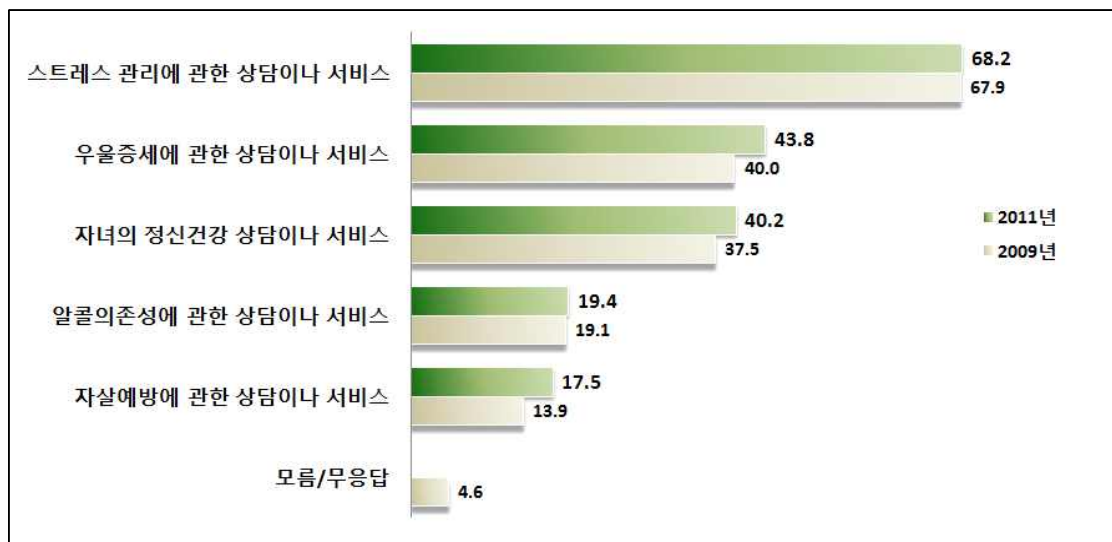
- 2009년과 큰 차이 없으나,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3.3%p 증가함.

6.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및 이용의향

◎ 정신보건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93명(29.3%)이며,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669명(66.9%)임.

- 2009년에 비해 정신보건센터 인지도는 4.7%p 증가하였고,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의향은 5.6%p 증가함.

◎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로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라는 응답이 68.2%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세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43.8%), '자녀의 정신건강 상담이나 서비스'(40.2%) 등의 순임. (단위: %)



◎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74명 (7.4%)임.

- 2009년에 비해 '블루터치' 인지도가 2.4%p 증가하였음.
- '블루터치' 접촉 경로로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25.7%), '신문/잡지'(24.3%), '전광판/지하철/버스/간판 등 옥외광고'(21.6%) 등의 순임.

7. 정신질환자 수용 관련 태도

◎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7%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41.3%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함.

- 2009년에 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5.2% 증가함.

제 3 장

조사결과

1.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2.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
3. 우울증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4. 음주문제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5. 자살 시도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6. 스트레스, 음주, 우울증 등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7.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및 이용의향
8. 정신질환자 수용 관련 태도

1.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1)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른 위험군 분류

- 위험군 분류 방법

문1-1번부터 문1-8번까지의 응답 중 '정말 그렇다'라는 응답이 0개 또는 1개는 '저위험군'으로, 2개 또는 3개는 '위험군'으로, 4개 또는 5개는 '고위험군'으로, 6개 이상 응답자는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함.

* 단 문1-6번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정말 그렇다'로 변환하여 분류함.

<표 1>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른 위험군 분류

구분	2011년		2009년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1) 초고위험군	(37)	3.7	(37)	3.7
(2) 고위험군	(340)	34.0	(329)	32.9
(3) 위험군	(558)	55.8	(545)	54.5
(4) 저위험군	(65)	6.5	(89)	8.9

문1-1번: 직장, 가정,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문1-2번: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문1-3번: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

문1-4번: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문1-5번: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문1-6번: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

문1-7번: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문1-8번: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전 체

- 스트레스로 체감 수준이 매우 높은 초위험군은 3.7%임.
그 밖에 고위험군 34.0%, 위험군 55.8%, 저위험군 6.5%로 응답함.
- 초고위험군 비율은 2009년 조사 결과와 동일하며, 고위험군은 1.1%p, 위험군은 1.3%p 증가하였음. 반면, 저위험군은 2009년에 비해 2.4%p 감소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초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 '위험군'과 '저위험군'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표 2>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른 위험군 분류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스트레스 초고위험군	스트레스 고위험군	스트레스 위험군	스트레스 저위험군	계
■ 전 체 ■	(1000)	3.7	34.0	55.8	6.5	100.0
연 령						
15 - 19 세	(84)	2.4	13.1	72.6	11.9	100.0
20 대	(202)	4.5	26.2	63.4	5.9	100.0
30 대	(239)	4.6	45.6	46.4	3.3	100.0
40 대	(222)	2.7	39.6	50.9	6.8	100.0
50 대	(192)	3.6	34.9	55.2	6.3	100.0
60 세 - 65 세	(61)	3.3	19.7	63.9	13.1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1.2	30.5	61.0	7.3	100.0
고 졸	(478)	4.4	34.9	54.8	5.9	100.0
대 재 이 상	(440)	3.4	33.6	55.9	7.0	100.0
월 가 구 소 득						
99 만 원 이 하	(29)	6.9	37.9	51.7	3.4	100.0
100- 199 만 원	(106)	6.6	43.4	43.4	6.6	100.0
200- 299 만 원	(205)	3.9	38.5	55.1	2.4	100.0
300- 399 만 원	(191)	3.7	32.5	57.6	6.3	100.0
400- 499 만 원	(170)	2.4	37.6	54.7	5.3	100.0
500 만 원 이 상	(254)	3.5	26.4	60.6	9.4	100.0
모 름 / 무응답	(45)	0.0	24.4	60.0	15.6	100.0
경 제 수 준						
상	(39)	2.6	10.3	71.8	15.4	100.0
중	(748)	3.3	30.9	58.8	7.0	100.0
하	(212)	5.2	49.1	42.5	3.3	100.0
모 름 /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365)	4.1	28.2	61.4	6.3	100.0
기 혼	(598)	3.5	36.1	53.3	7.0	100.0
기 타	(37)	2.7	56.8	40.5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 은 편	(491)	1.6	24.4	63.7	10.2	100.0
보 통	(424)	4.7	42.5	50.0	2.8	100.0
좋 지 않 은 편	(85)	10.6	47.1	38.8	3.5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 은 편	(604)	0.8	25.2	64.7	9.3	100.0
보 통	(337)	4.7	46.3	46.6	2.4	100.0
좋 지 않 은 편	(59)	27.1	54.2	16.9	1.7	100.0

2.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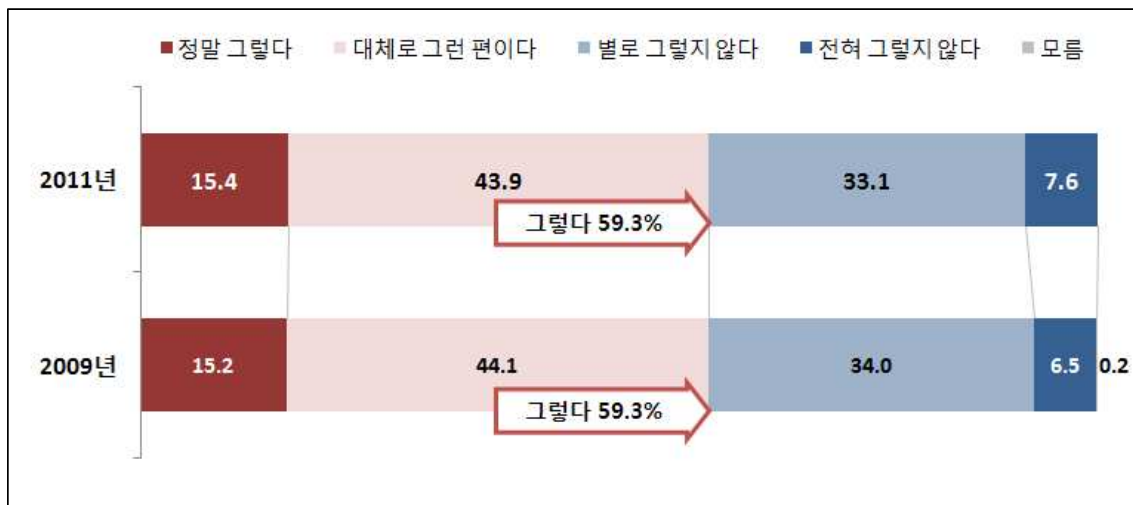
1) 사회적 요인 -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

문1]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1)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그림 1>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

(단위: %)



전 체

- '직장, 가정,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에 대해, 15.4%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3.9%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59.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40.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큰 차이 없음.

응답자 특성별

- '직장, 가정,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남자(61.3%), △30대(67.8%), △사무/관리/전문직(69.4%)과 △영업/판매/서비스직(63.5%) 종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3>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정말 그렇다	②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 전 체 ☐	(1000)	15.4	43.9	59.3	33.1	7.6	40.7	100.0
성 별								
남 자	(499)	17.6	43.7	61.3	30.1	8.6	38.7	100.0
여 자	(501)	13.2	44.1	57.3	36.1	6.6	42.7	100.0
연 령								
15 - 19 세	(84)	6.0	29.8	35.7	48.8	15.5	64.3	100.0
20 대	(202)	13.4	48.5	61.9	33.7	4.5	38.1	100.0
30 대	(239)	18.8	49.0	67.8	26.8	5.4	32.2	100.0
40 대	(222)	16.2	44.6	60.8	30.2	9.0	39.2	100.0
50 대	(192)	16.7	41.1	57.8	34.4	7.8	42.2	100.0
60 세 - 65 세	(61)	14.8	34.4	49.2	41.0	9.8	50.8	100.0
직 업								
사무/관리/전문직	(310)	17.4	51.9	69.4	26.5	4.2	30.6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26)	20.6	42.9	63.5	31.7	4.8	36.5	100.0
생산/기술/노무직	(71)	22.5	36.6	59.2	31.0	9.9	40.8	100.0
자 영 업	(98)	18.4	38.8	57.1	32.7	10.2	42.9	100.0
학 생	(160)	4.4	41.3	45.6	41.9	12.5	54.4	100.0
주 부	(182)	12.6	40.1	52.7	39.0	8.2	47.3	100.0
무직/퇴직/기타	(51)	19.6	39.2	58.8	31.4	9.8	41.2	100.0
모 름 / 무응답	(2)	0.0	50.0	50.0	50.0	0.0	50.0	100.0
경 제 수 준								
상	(39)	2.6	41.0	43.6	48.7	7.7	56.4	100.0
중	(748)	14.2	45.2	59.4	32.9	7.8	40.6	100.0
하	(212)	22.2	39.6	61.8	31.1	7.1	38.2	100.0
모 름 /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 은 편	(491)	9.0	39.9	48.9	40.1	11.0	51.1	100.0
보 통	(424)	19.3	48.1	67.5	28.3	4.2	32.5	100.0
좋 지 않 은 편	(85)	32.9	45.9	78.8	16.5	4.7	21.2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 은 편	(604)	9.6	40.4	50.0	40.2	9.8	50.0	100.0
보 통	(337)	20.5	49.6	70.0	25.2	4.7	30.0	100.0
좋 지 않 은 편	(59)	45.8	47.5	93.2	5.1	1.7	6.8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78.4	21.6	100.0	0.0	0.0	0.0	100.0
고 위 험 군	(340)	25.9	62.4	88.2	10.9	0.9	11.8	100.0
위 험 군	(558)	6.6	38.2	44.8	47.1	8.1	55.2	100.0
저 위 험 군	(65)	0.0	9.2	9.2	47.7	43.1	9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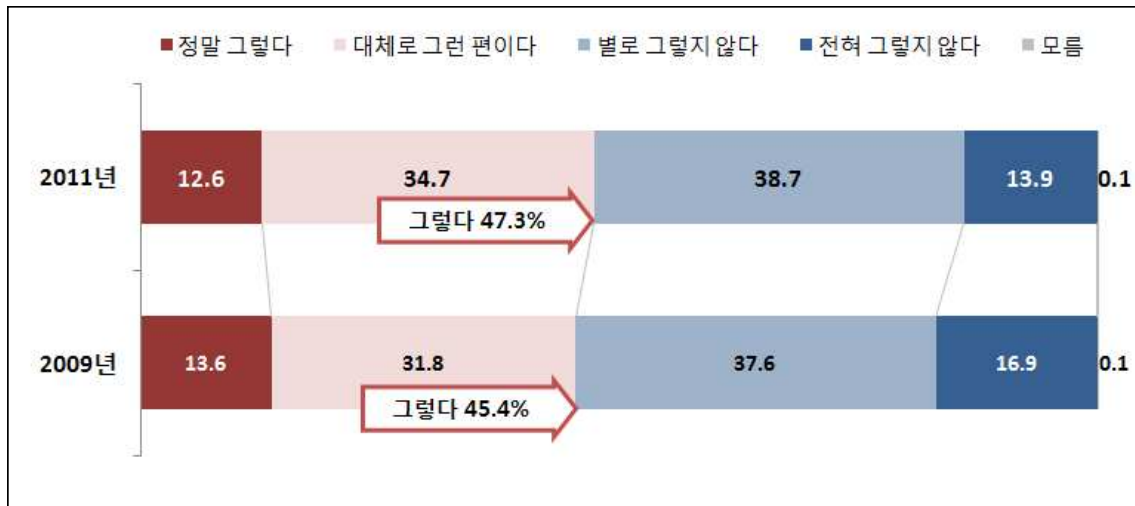
2) 사회적 요인 - 경제적인 문제

문1]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7)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그림 2> 경제적인 문제

(단위: %)



전 체

-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에 대해, 12.6%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4.7%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47.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52.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2009년에 비해 '정말 그렇다'는 응답은 1.0%p 감소한 반면,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2.9%p 증가하였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2009년에 비해 1.9%p 증가함.

응답자 특성별

-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남자(52.5%), △30대(55.2%), △무직/퇴직/기타(68.6%)와 영업/판매/서비스직(60.3%) 종사자, △기혼(48.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 경제적인 문제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계
전체	(1000)	12.6	34.7	47.3	38.7	13.9	52.6	0.1	100.0
성별									
남자	(499)	14.0	38.5	52.5	34.3	13.0	47.3	0.2	100.0
여자	(501)	11.2	30.9	42.1	43.1	14.8	57.9	0.0	100.0
연령									
15 - 19 세	(84)	7.1	27.4	34.5	35.7	29.8	65.5	0.0	100.0
20 대	(202)	9.4	34.7	44.1	39.1	16.8	55.9	0.0	100.0
30 대	(239)	14.2	41.0	55.2	36.4	8.4	44.8	0.0	100.0
40 대	(222)	14.9	34.2	49.1	41.0	9.5	50.5	0.5	100.0
50 대	(192)	14.6	34.9	49.5	40.1	10.4	50.5	0.0	100.0
60 세 - 65 세	(61)	9.8	21.3	31.1	37.7	31.1	68.9	0.0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직	(310)	11.9	34.2	46.1	42.3	11.3	53.5	0.3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26)	18.3	42.1	60.3	31.0	8.7	39.7	0.0	100.0
생산/기술/노무직	(71)	19.7	33.8	53.5	36.6	9.9	46.5	0.0	100.0
자영업	(98)	12.2	41.8	54.1	33.7	12.2	45.9	0.0	100.0
학생	(160)	5.6	32.5	38.1	37.5	24.4	61.9	0.0	100.0
주부	(182)	11.5	25.3	36.8	46.7	16.5	63.2	0.0	100.0
무직/퇴직/기타	(51)	19.6	49.0	68.6	21.6	9.8	31.4	0.0	100.0
모름 /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경제수준									
상	(39)	0.0	25.6	25.6	28.2	46.2	74.4	0.0	100.0
중	(748)	8.6	32.6	41.2	44.0	14.8	58.8	0.0	100.0
하	(212)	29.2	43.9	73.1	21.7	4.7	26.4	0.5	100.0
모름 /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혼인상태									
미혼	(365)	9.9	33.7	43.6	38.6	17.5	56.2	0.3	100.0
기혼	(598)	13.0	35.5	48.5	39.1	12.4	51.5	0.0	100.0
기타	(37)	32.4	32.4	64.9	32.4	2.7	35.1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491)	9.8	30.1	39.9	42.4	17.5	59.9	0.2	100.0
보통	(424)	14.2	39.2	53.3	36.6	10.1	46.7	0.0	100.0
좋지 않은 편	(85)	21.2	38.8	60.0	28.2	11.8	40.0	0.0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04)	9.1	30.6	39.7	43.2	16.9	60.1	0.2	100.0
보통	(337)	15.7	40.9	56.7	34.4	8.9	43.3	0.0	100.0
좋지 않은 편	(59)	30.5	40.7	71.2	16.9	11.9	28.8	0.0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험군	(37)	59.5	35.1	94.6	5.4	0.0	5.4	0.0	100.0
고 위험군	(340)	22.6	46.5	69.1	27.1	3.5	30.6	0.3	100.0
위험군	(558)	4.8	31.0	35.8	49.3	14.9	64.2	0.0	100.0
저 위험군	(65)	0.0	4.6	4.6	27.7	67.7	95.4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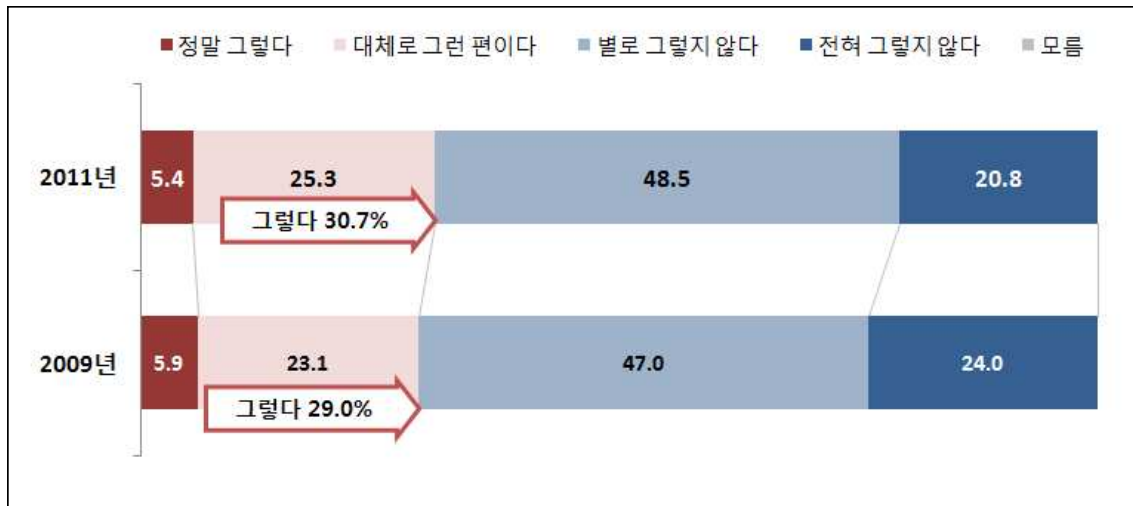
3) 관계적 요인 -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문1]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8)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그림 3>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단위: %)



전 체

-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에 대해, 5.4%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5.3%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30.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69.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2009년에 비해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2.2%p 증가하였음.
-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2009년에 비해 1.7%p 증가함.

응답자 특성별

-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미혼(37.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5>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 전 체 ■	(1000)	5.4	25.3	30.7	48.5	20.8	69.3	100.0
성 별								
남 자	(499)	6.2	25.1	31.3	46.7	22.0	68.7	100.0
여 자	(501)	4.6	25.5	30.1	50.3	19.6	69.9	100.0
연 령								
15 - 19 세	(84)	7.1	25.0	32.1	39.3	28.6	67.9	100.0
20 대	(202)	4.0	31.2	35.1	44.1	20.8	64.9	100.0
30 대	(239)	6.7	28.0	34.7	50.2	15.1	65.3	100.0
40 대	(222)	5.4	20.3	25.7	51.8	22.5	74.3	100.0
50 대	(192)	4.7	23.4	28.1	50.5	21.4	71.9	100.0
60 세 - 65 세	(61)	4.9	19.7	24.6	50.8	24.6	75.4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6.1	19.5	25.6	48.8	25.6	74.4	100.0
고 졸	(478)	5.6	23.0	28.7	50.4	20.9	71.3	100.0
대 재 이 상	(440)	5.0	28.9	33.9	46.4	19.8	66.1	100.0
경 제 수 준								
상	(39)	2.6	25.6	28.2	35.9	35.9	71.8	100.0
중	(748)	4.5	25.0	29.5	50.3	20.2	70.5	100.0
하	(212)	9.0	26.4	35.4	44.3	20.3	64.6	100.0
모 름 /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365)	6.3	31.2	37.5	41.4	21.1	62.5	100.0
기 혼	(598)	4.8	21.7	26.6	52.0	21.4	73.4	100.0
기 타	(37)	5.4	24.3	29.7	62.2	8.1	70.3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 은 편	(491)	4.5	21.6	26.1	47.5	26.5	73.9	100.0
보 통	(424)	5.4	29.7	35.1	50.0	14.9	64.9	100.0
좋 지 않 은 편	(85)	10.6	24.7	35.3	47.1	17.6	64.7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 은 편	(604)	3.1	20.2	23.3	51.5	25.2	76.7	100.0
보 통	(337)	6.5	32.0	38.6	46.6	14.8	61.4	100.0
좋 지 않 은 편	(59)	22.0	39.0	61.0	28.8	10.2	39.0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40.5	37.8	78.4	21.6	0.0	21.6	100.0
고 위 험 군	(340)	10.0	40.9	50.9	42.9	6.2	49.1	100.0
위 험 군	(558)	0.9	17.9	18.8	57.2	24.0	81.2	100.0
저 위 험 군	(65)	0.0	0.0	0.0	18.5	81.5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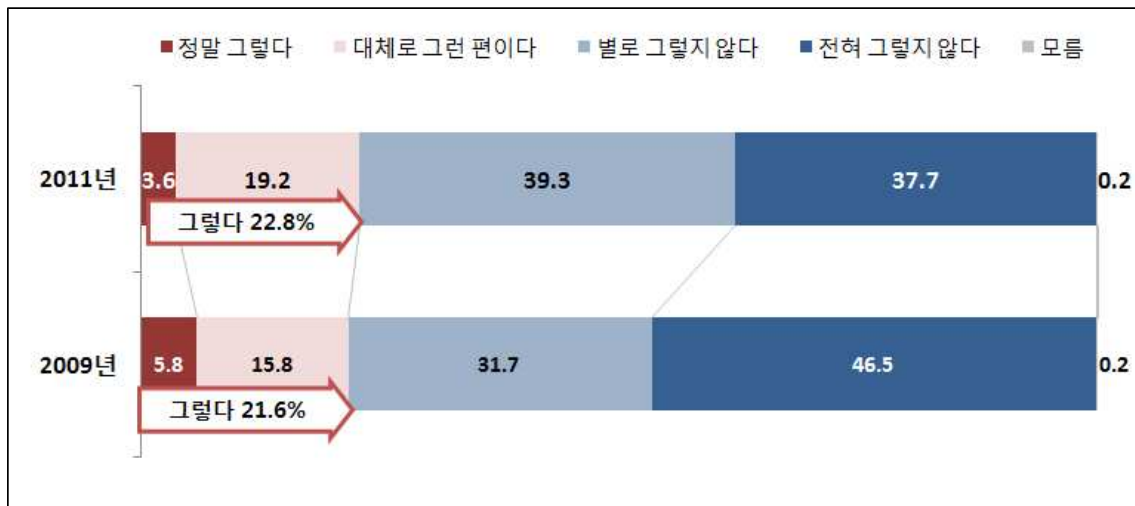
4) 관계적 요인 - 고민 상담자 부재 문제

문1]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5)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그림 4> 고민 상담자 부재 문제

(단위: %)



전 체

-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 3.6%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9.2%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22.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77.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2009년에 비해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3.4%p 증가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8%p 감소하였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2009년에 비해 1.2%p 증가함.

응답자 특성별

-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남자(25.7%) △40대(30.6%)와 60세~65세(34.4%), △고졸(27.0%), △기혼(24.4%), △신체적 건강상태가 보통임(29.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6> 고민 상담자 부재 문제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계
■ 전 체 ■	(1000)	3.6	19.2	22.8	39.3	37.7	77.0	0.2	100.0
성 별									
남 자	(499)	3.6	22.0	25.7	37.1	37.1	74.1	0.2	100.0
여 자	(501)	3.6	16.4	20.0	41.5	38.3	79.8	0.2	100.0
연 령									
15 - 19 세	(84)	4.8	13.1	17.9	34.5	46.4	81.0	1.2	100.0
20 대	(202)	2.5	12.4	14.9	39.1	45.5	84.7	0.5	100.0
30 대	(239)	1.7	17.2	18.8	41.0	40.2	81.2	0.0	100.0
40 대	(222)	2.7	27.9	30.6	36.9	32.4	69.4	0.0	100.0
50 대	(192)	6.8	18.8	25.5	43.8	30.7	74.5	0.0	100.0
60 세 - 65 세	(61)	6.6	27.9	34.4	34.4	31.1	65.6	0.0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8.5	12.2	20.7	50.0	29.3	79.3	0.0	100.0
고 졸	(478)	4.0	23.0	27.0	35.4	37.2	72.6	0.4	100.0
대 재 이 상	(440)	2.3	16.4	18.6	41.6	39.8	81.4	0.0	100.0
경 제 수 준									
상	(39)	2.6	10.3	12.8	28.2	59.0	87.2	0.0	100.0
중	(748)	3.1	16.8	19.9	40.6	39.2	79.8	0.3	100.0
하	(212)	5.7	29.2	34.9	36.3	28.8	65.1	0.0	100.0
모 름 /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365)	3.3	16.2	19.5	35.6	44.4	80.0	0.5	100.0
기 혼	(598)	3.2	21.2	24.4	40.8	34.8	75.6	0.0	100.0
기 타	(37)	13.5	16.2	29.7	51.4	18.9	70.3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 은 편	(491)	3.1	13.8	16.9	38.9	44.0	82.9	0.2	100.0
보 통	(424)	3.8	25.5	29.2	40.8	29.7	70.5	0.2	100.0
좋 지 않 은 편	(85)	5.9	18.8	24.7	34.1	41.2	75.3	0.0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 은 편	(604)	2.6	15.9	18.5	37.6	43.5	81.1	0.3	100.0
보 통	(337)	3.9	24.3	28.2	43.0	28.8	71.8	0.0	100.0
좋 지 않 은 편	(59)	11.9	23.7	35.6	35.6	28.8	64.4	0.0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24.3	35.1	59.5	29.7	10.8	40.5	0.0	100.0
고 위 험 군	(340)	4.7	32.9	37.6	48.2	14.1	62.4	0.0	100.0
위 험 군	(558)	2.0	11.8	13.8	38.5	47.3	85.8	0.4	100.0
저 위 험 군	(65)	0.0	1.5	1.5	4.6	93.8	98.5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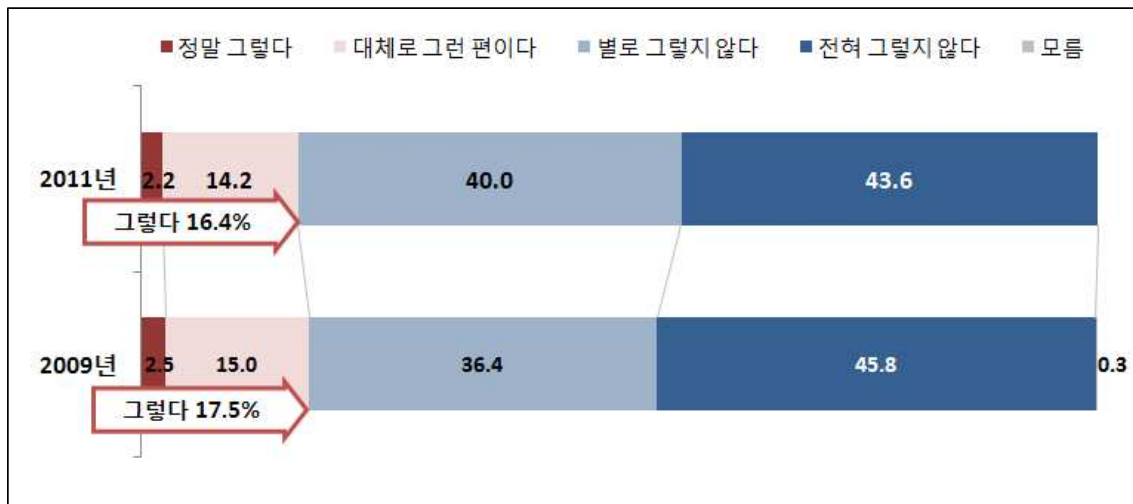
5) 스트레스 관리 요인 -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

문1]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4)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림 5>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

(단위: %)



전 체

-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에 대해, 2.2%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4.2%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16.4%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83.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2009년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은 1.1%p 감소함.

응답자 특성별

-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여자(20.0%), △30대(23.0%), △생산/기술/노무직(22.5%)과 △영업/판매/서비스직(20.6%) 종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7>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전체	(1000)	2.2	14.2	16.4	40.0	43.6	83.6	100.0
성별								
남자	(499)	2.6	10.2	12.8	38.5	48.7	87.2	100.0
여자	(501)	1.8	18.2	20.0	41.5	38.5	80.0	100.0
연령								
15 - 19 세	(84)	1.2	13.1	14.3	44.0	41.7	85.7	100.0
20 대	(202)	2.0	12.9	14.9	38.1	47.0	85.1	100.0
30 대	(239)	2.9	20.1	23.0	42.7	34.3	77.0	100.0
40 대	(222)	3.2	15.8	18.9	38.7	42.3	81.1	100.0
50 대	(192)	1.0	8.9	9.9	43.8	46.4	90.1	100.0
60 세 - 65 세	(61)	1.6	8.2	9.8	23.0	67.2	90.2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직	(310)	1.9	13.9	15.8	40.0	44.2	84.2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26)	3.2	17.5	20.6	40.5	38.9	79.4	100.0
생산/기술/노무직	(71)	4.2	18.3	22.5	35.2	42.3	77.5	100.0
자영업	(98)	2.0	9.2	11.2	41.8	46.9	88.8	100.0
학생	(160)	0.6	13.8	14.4	40.0	45.6	85.6	100.0
주부	(182)	2.2	15.9	18.1	38.5	43.4	81.9	100.0
무직/퇴직/기타	(51)	3.9	5.9	9.8	47.1	43.1	90.2	100.0
모름 / 무응답	(2)	0.0	50.0	50.0	50.0	0.0	50.0	100.0
경제수준								
상	(39)	2.6	7.7	10.3	28.2	61.5	89.7	100.0
중	(748)	1.9	14.3	16.2	40.9	42.9	83.8	100.0
하	(212)	3.3	14.6	17.9	39.2	42.9	82.1	100.0
모름 /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491)	0.8	11.6	12.4	38.1	49.5	87.6	100.0
보통	(424)	3.1	16.0	19.1	43.6	37.3	80.9	100.0
좋지 않은 편	(85)	5.9	20.0	25.9	32.9	41.2	74.1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04)	0.7	10.6	11.3	39.6	49.2	88.7	100.0
보통	(337)	3.6	17.5	21.1	41.8	37.1	78.9	100.0
좋지 않은 편	(59)	10.2	32.2	42.4	33.9	23.7	57.6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고위험군	(37)	37.8	29.7	67.6	29.7	2.7	32.4	100.0
고위험군	(340)	1.8	27.9	29.7	49.7	20.6	70.3	100.0
위험군	(558)	0.4	6.3	6.6	38.9	54.5	93.4	100.0
저위험군	(65)	0.0	1.5	1.5	4.6	93.8	9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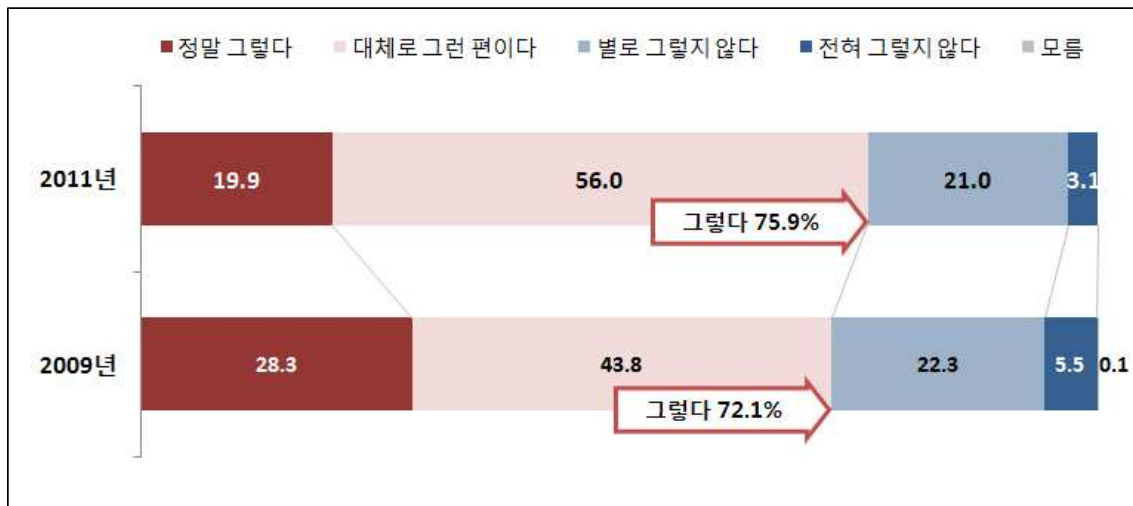
6) 스트레스 관리 요인 -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문제

문1]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6)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

<그림 6>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문제

(단위: %)



전 체

-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라는 말에 대해, 19.9%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6.0%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75.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4.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2009년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은 3.8%p 증가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남자(78.2%), △50대(81.8%)와 60~65세(83.6%), △중졸이하(86.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8>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문제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 전 체 □	(1000)	19.9	56.0	75.9	21.0	3.1	24.1	100.0
성 별								
남 자	(499)	21.0	57.1	78.2	18.6	3.2	21.8	100.0
여 자	(501)	18.8	54.9	73.7	23.4	3.0	26.3	100.0
연 령								
15 - 19 세	(84)	17.9	60.7	78.6	19.0	2.4	21.4	100.0
20 대	(202)	16.8	55.0	71.8	24.8	3.5	28.2	100.0
30 대	(239)	13.0	60.7	73.6	22.6	3.8	26.4	100.0
40 대	(222)	21.2	52.7	73.9	23.4	2.7	26.1	100.0
50 대	(192)	29.2	52.6	81.8	15.1	3.1	18.2	100.0
60 세 - 65 세	(61)	26.2	57.4	83.6	14.8	1.6	16.4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25.6	61.0	86.6	11.0	2.4	13.4	100.0
고 졸	(478)	22.0	52.5	74.5	22.0	3.6	25.5	100.0
대 재 이 상	(440)	16.6	58.9	75.5	21.8	2.7	24.5	100.0
경 제 수 준								
상	(39)	12.8	74.4	87.2	12.8	0.0	12.8	100.0
중	(748)	19.0	57.2	76.2	20.9	2.9	23.8	100.0
하	(212)	24.5	48.6	73.1	22.6	4.2	26.9	100.0
모 름 /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 은 편	(491)	24.2	60.9	85.1	12.8	2.0	14.9	100.0
보 통	(424)	16.0	52.6	68.6	28.1	3.3	31.4	100.0
좋 지 않 은 편	(85)	14.1	44.7	58.8	32.9	8.2	41.2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 은 편	(604)	25.2	58.3	83.4	14.4	2.2	16.6	100.0
보 통	(337)	12.8	55.2	68.0	29.7	2.4	32.0	100.0
좋 지 않 은 편	(59)	6.8	37.3	44.1	39.0	16.9	55.9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2.7	18.9	21.6	56.8	21.6	78.4	100.0
고 위 험 군	(340)	7.1	53.5	60.6	34.4	5.0	39.4	100.0
위 험 군	(558)	24.4	62.0	86.4	12.5	1.1	13.6	100.0
저 위 험 군	(65)	58.5	38.5	96.9	3.1	0.0	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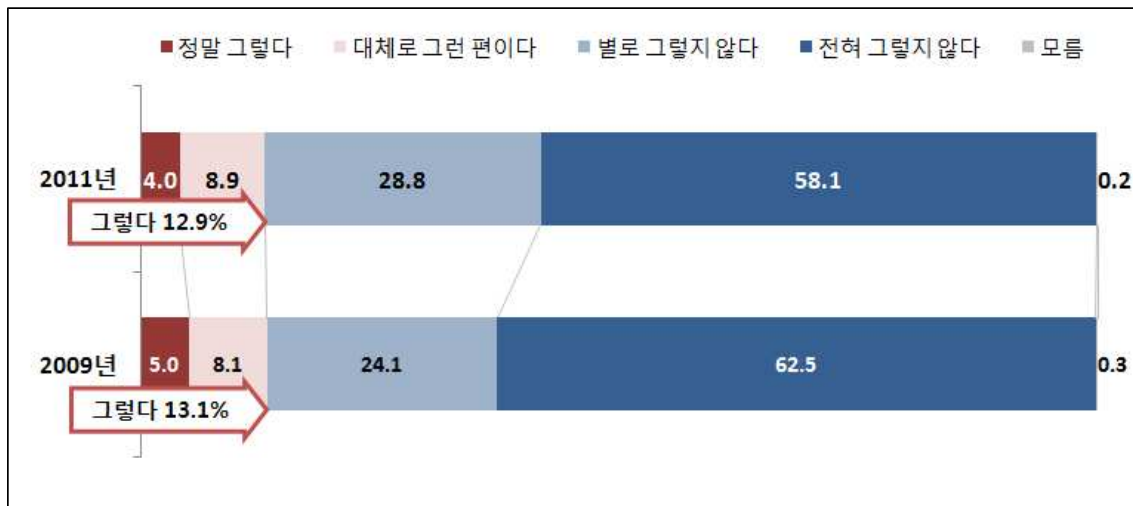
7) 스트레스 해소 요인 - 우울한 기분 때문에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문1]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2)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림 7> 우울한 기분 때문에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단위: %)



전 체

-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말에 대해, 4.0%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8.9%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12.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86.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2009년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4%p 감소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남자(18.2%), △무직/퇴직/기타(21.6%)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9> 우울한 기분 때문에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계
■ 전 체 ■	(1000)	4.0	8.9	12.9	28.8	58.1	86.9	0.2	100.0
성 별									
남 자	(499)	6.0	12.2	18.2	28.7	53.1	81.8	0.0	100.0
여 자	(501)	2.0	5.6	7.6	28.9	63.1	92.0	0.4	100.0
연 령									
15 - 19 세	(84)	2.4	3.6	6.0	9.5	83.3	92.9	1.2	100.0
20 대	(202)	4.5	7.9	12.4	28.7	58.9	87.6	0.0	100.0
30 대	(239)	3.8	11.3	15.1	34.3	50.6	84.9	0.0	100.0
40 대	(222)	4.5	8.6	13.1	31.1	55.9	86.9	0.0	100.0
50 대	(192)	3.6	10.4	14.1	30.2	55.2	85.4	0.5	100.0
60 세 - 65 세	(61)	4.9	6.6	11.5	21.3	67.2	88.5	0.0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2.4	9.8	12.2	19.5	68.3	87.8	0.0	100.0
고 졸	(478)	4.8	8.6	13.4	29.7	56.5	86.2	0.4	100.0
대 재 이 상	(440)	3.4	9.1	12.5	29.5	58.0	87.5	0.0	100.0
직 업									
사무/관리/전문직	(310)	3.5	11.3	14.8	31.9	53.2	85.2	0.0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26)	5.6	8.7	14.3	34.1	51.6	85.7	0.0	100.0
생산/기술/노무직	(71)	5.6	14.1	19.7	21.1	59.2	80.3	0.0	100.0
자 영 업	(98)	7.1	11.2	18.4	30.6	51.0	81.6	0.0	100.0
학 생	(160)	2.5	5.0	7.5	20.0	71.9	91.9	0.6	100.0
주 부	(182)	2.2	3.3	5.5	30.8	63.7	94.5	0.0	100.0
무직/퇴직/기타	(51)	5.9	15.7	21.6	21.6	54.9	76.5	2.0	100.0
모 름 /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 은 편	(491)	1.8	6.3	8.1	27.1	64.6	91.6	0.2	100.0
보 통	(424)	5.4	10.4	15.8	31.8	52.1	84.0	0.2	100.0
좋 지 않 은 편	(85)	9.4	16.5	25.9	23.5	50.6	74.1	0.0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 은 편	(604)	1.8	6.0	7.8	29.5	62.4	91.9	0.3	100.0
보 통	(337)	5.3	12.8	18.1	29.4	52.5	81.9	0.0	100.0
좋 지 않 은 편	(59)	18.6	16.9	35.6	18.6	45.8	64.4	0.0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48.6	18.9	67.6	18.9	13.5	32.4	0.0	100.0
고 위 험 군	(340)	4.7	17.6	22.4	39.7	37.9	77.6	0.0	100.0
위 험 군	(558)	1.1	3.9	5.0	25.6	69.0	94.6	0.4	100.0
저 위 험 군	(65)	0.0	0.0	0.0	4.6	95.4	10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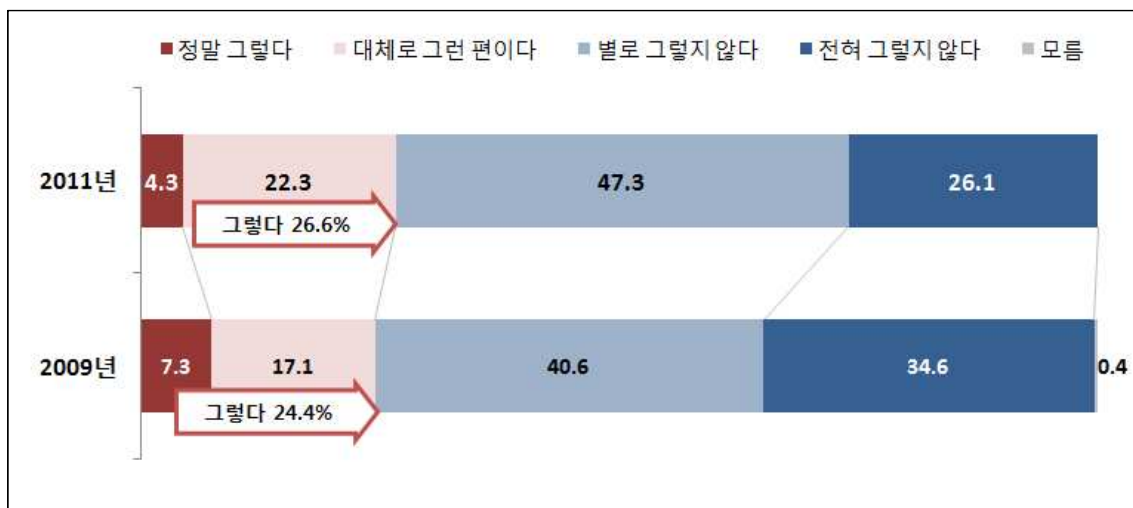
8) 스트레스 해소 요인 - 대인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 선호

문1]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3)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

<그림 8> 대인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 선호

(단위: %)



전 체

-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라는 말에 대해, 4.3%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2.3%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26.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73.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정말 그렇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 3.0%p 감소한 반면,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5.2%p 증가함.

응답자 특성별

-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30대(33.5%), △미혼(28.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10> 대인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 선호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전체	(1000)	4.3	22.3	26.6	47.3	26.1	73.4	100.0
연령								
15 - 19 세	(84)	3.6	15.5	19.0	59.5	21.4	81.0	100.0
20 대	(202)	3.0	22.8	25.7	47.0	27.2	74.3	100.0
30 대	(239)	5.0	28.5	33.5	43.5	23.0	66.5	100.0
40 대	(222)	4.5	21.6	26.1	45.5	28.4	73.9	100.0
50 대	(192)	5.2	19.8	25.0	49.5	25.5	75.0	100.0
60 세 - 65 세	(61)	3.3	16.4	19.7	45.9	34.4	80.3	100.0
학력								
중 졸 이 하	(82)	6.1	11.0	17.1	59.8	23.2	82.9	100.0
고 졸	(478)	5.2	23.2	28.5	42.5	29.1	71.5	100.0
대 재 이 상	(440)	3.0	23.4	26.4	50.2	23.4	73.6	100.0
경제수준								
상	(39)	5.1	15.4	20.5	43.6	35.9	79.5	100.0
중	(748)	3.6	21.4	25.0	48.7	26.3	75.0	100.0
하	(212)	6.6	26.4	33.0	43.4	23.6	67.0	100.0
모름 /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혼인상태								
미 혼	(365)	4.4	24.4	28.8	47.7	23.6	71.2	100.0
기 혼	(598)	4.2	20.6	24.7	46.7	28.6	75.3	100.0
기 타	(37)	5.4	29.7	35.1	54.1	10.8	64.9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491)	3.1	19.8	22.8	47.7	29.5	77.2	100.0
보통	(424)	4.2	23.6	27.8	49.5	22.6	72.2	100.0
좋지 않은 편	(85)	11.8	30.6	42.4	34.1	23.5	57.6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04)	2.6	19.0	21.7	48.2	30.1	78.3	100.0
보통	(337)	5.0	26.1	31.2	47.8	21.1	68.8	100.0
좋지 않은 편	(59)	16.9	33.9	50.8	35.6	13.6	49.2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35.1	29.7	64.9	27.0	8.1	35.1	100.0
고 위 험 군	(340)	6.8	40.3	47.1	43.8	9.1	52.9	100.0
위 험 군	(558)	1.3	13.3	14.5	53.8	31.7	85.5	100.0
저 위 험 군	(65)	0.0	1.5	1.5	21.5	76.9	9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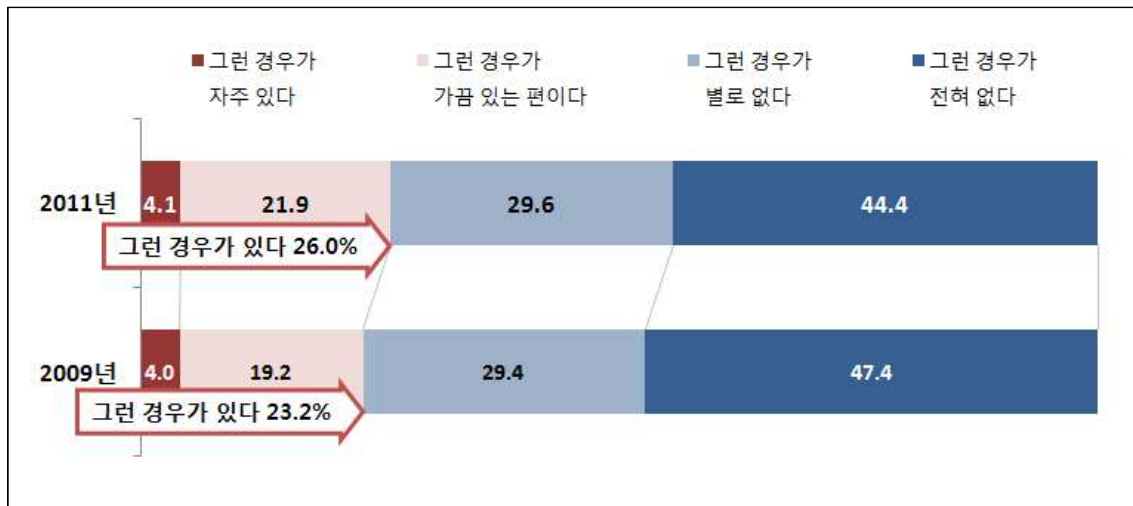
3. 우울증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1) 우울증 경험 유무

문2] _님께서는 금년들어 2주일 이상 기분이 우울하여 의욕이 없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림 9> 우울증 경험 유무

(단위: %)



전 체

- '금년들어 2주일 이상 기분이 우울하여 의욕이 없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에 대해, 4.1%가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1.9%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26.0%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74.0%는 없다고 응답함.
- '금년들어 2주일 이상 기분이 우울하여 의욕이 없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2009년에 비해 2.8%p 증가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금년들어 2주일 이상 기분이 우울하여 의욕이 없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으며, △여자(28.5%), △20대(34.7%), △미혼(30.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11> 우울증 경험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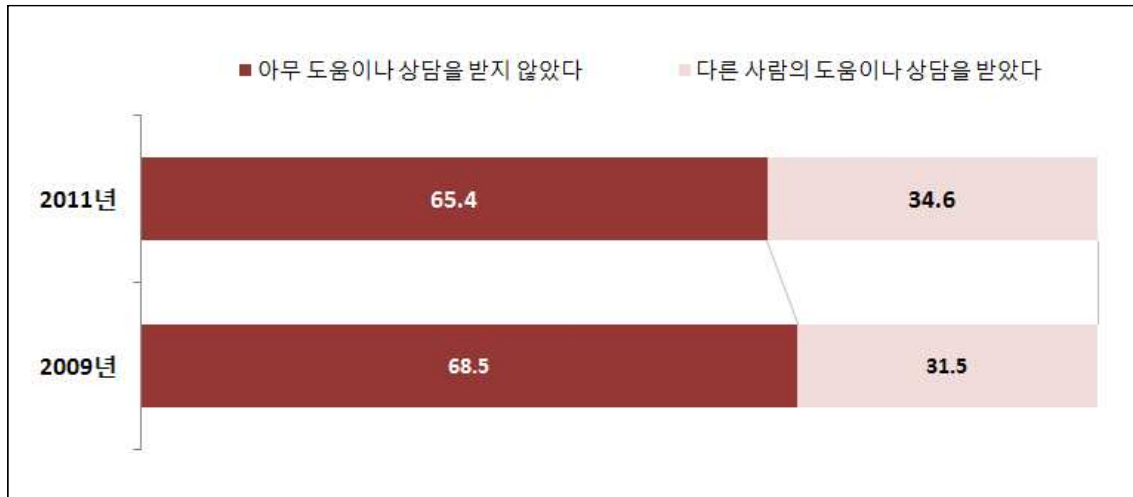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①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	②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편이다	①+②	③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④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③+④	계
■ 전 체 ■	(1000)	4.1	21.9	26.0	29.6	44.4	74.0	100.0
성 별								
남 자	(499)	3.6	19.8	23.4	27.1	49.5	76.6	100.0
여 자	(501)	4.6	24.0	28.5	32.1	39.3	71.5	100.0
연 령								
15 - 19 세	(84)	3.6	16.7	20.2	25.0	54.8	79.8	100.0
20 대	(202)	4.0	30.7	34.7	23.8	41.6	65.3	100.0
30 대	(239)	6.3	22.6	28.9	30.5	40.6	71.1	100.0
40 대	(222)	4.1	17.6	21.6	33.8	44.6	78.4	100.0
50 대	(192)	2.6	18.8	21.4	31.3	47.4	78.6	100.0
60 세 - 65 세	(61)	1.6	23.0	24.6	31.1	44.3	75.4	100.0
경 제 수 준								
상	(39)	0.0	17.9	17.9	17.9	64.1	82.1	100.0
중	(748)	4.0	20.1	24.1	30.2	45.7	75.9	100.0
하	(212)	5.2	28.8	34.0	29.7	36.3	66.0	100.0
모 름 /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365)	4.7	26.0	30.7	26.6	42.7	69.3	100.0
기 혼	(598)	3.5	19.9	23.4	30.1	46.5	76.6	100.0
기 타	(37)	8.1	13.5	21.6	51.4	27.0	78.4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종 은 편	(491)	2.2	15.7	17.9	26.7	55.4	82.1	100.0
보 통	(424)	4.7	27.8	32.5	32.5	34.9	67.5	100.0
종 지 않 은 편	(85)	11.8	28.2	40.0	31.8	28.2	60.0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종 은 편	(604)	1.5	15.1	16.6	28.5	55.0	83.4	100.0
보 통	(337)	4.5	31.2	35.6	33.5	30.9	64.4	100.0
종 지 않 은 편	(59)	28.8	39.0	67.8	18.6	13.6	32.2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40.5	37.8	78.4	21.6	0.0	21.6	100.0
고 위 험 군	(340)	4.7	33.2	37.9	33.2	28.8	62.1	100.0
위 험 군	(558)	1.8	15.9	17.7	29.9	52.3	82.3	100.0
저 위 험 군	(65)	0.0	4.6	4.6	12.3	83.1	95.4	100.0

2)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경험

문2-1] (그런 경우가 자주 있거나 가끔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나요?

<그림 10>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경험

(단위: %)



- * 2011년 조사에서 우울증을 경험 했다는 응답자 260명이 대상임.
- * 2009년 조사에서 우울증을 경험 했다는 응답자 232명이 대상임.

전 체

- 우울증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260명 중 우울증 경험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34.6%임.
-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이 2009년에 비해 3.1%p 증가함.

응답자 특성별

- '우울증 경험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여자(39.9%), △30대(47.8%)와 40대(43.8%), △고졸(40.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아무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으며, △남자(71.8%), △정신적 건강상태가 보통임(69.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12>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경험

(단위 : %)

Base=기분이 우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사례수 (명)	아무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	계
■ 전 체 ■		(260)	65.4	34.6	100.0
성 별	남 자	(117)	71.8	28.2	100.0
	여 자	(143)	60.1	39.9	100.0
연 령	15 - 19 세	(17)	70.6	29.4	100.0
	20 대	(70)	64.3	35.7	100.0
	30 대	(69)	52.2	47.8	100.0
	40 대	(48)	56.3	43.8	100.0
	50 대	(41)	87.8	12.2	100.0
	60 세 - 65 세	(15)	93.3	6.7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23)	91.3	8.7	100.0
	고 졸	(111)	59.5	40.5	100.0
	대 재 이 상	(126)	65.9	34.1	100.0
경 제 수 준					
	상	(7)	71.4	28.6	100.0
	중	(180)	65.0	35.0	100.0
	하	(72)	65.3	34.7	100.0
	모름 / 무응답	(1)	100.0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88)	63.6	36.4	100.0
	보통	(138)	65.2	34.8	100.0
	좋지 않은 편	(34)	70.6	29.4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100)	62.0	38.0	100.0
	보통	(120)	69.2	30.8	100.0
	좋지 않은 편	(40)	62.5	37.5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29)	82.8	17.2	100.0
	고 위 험 군	(129)	65.1	34.9	100.0
	위 험 군	(99)	60.6	39.4	100.0
	저 위 험 군	(3)	66.7	3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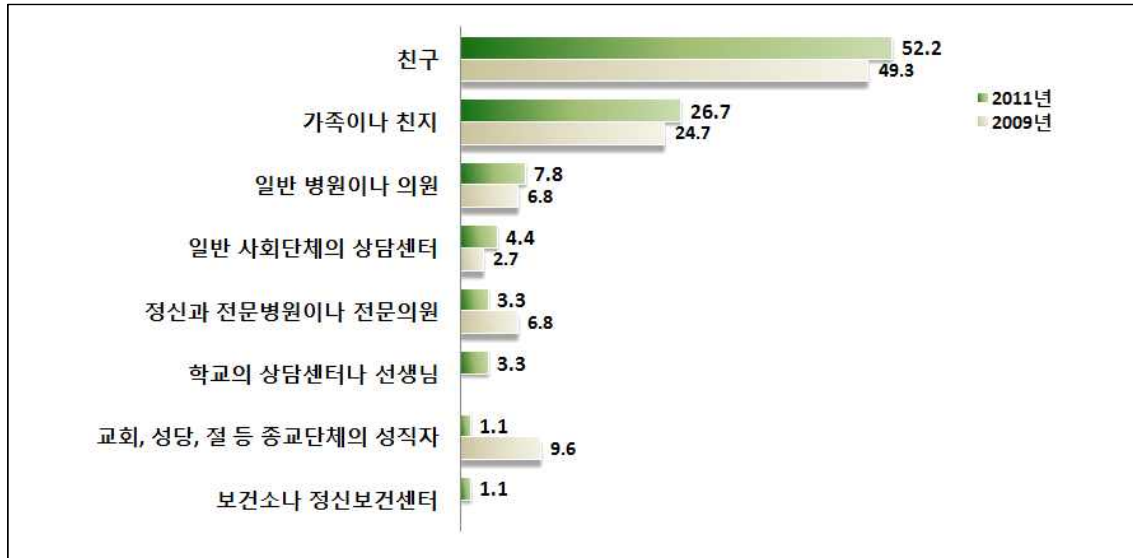
* 응답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3)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대상

문2-2]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다면) 다음 중 누구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나요?

<그림 11>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대상

(단위: %)



*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11년 조사에서 우울증 경험 시 도움을 받은 응답자 90명이 대상임.

* 2009년 조사에서 우울증 경험 시 도움을 받은 응답자 73명이 대상임.

전 체

- 우울증 경험 시 도움을 받았거나 상담을 했던 대상으로 '친구'라는 응답이 47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친지'(24명, 26.7%), '일반 병원이나 의원'(7명, 7.8%), '일반 사회단체의 상담센터'(4명, 4.4%) 등의 순임.
- 2009년에 비해 '친구'(+2.9%p), '가족이나 친지'(+2.0%p), '일반 사회단체의 상담센터'(1.7%p), '일반 병원이나 의원'(+1.0%p)은 증가한 반면,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의 성직자'(-8.5%p), '정신과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3.5%p)은 감소함.

응답자 특성별

- 우울증 경험 시 '친구'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 △여자(56.1%), △미혼(6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가족이나 친지'응답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으며 △여자(28.1%), △경제수준 '중'(28.6%), △기혼(30.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13>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대상

(단위 : %)

Base=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응답자	사례수 (명)	친구	가족이나 친지	일반 병원이나 의원	일반사회 단체의 상담센터	학교의 상담 센터나 선생님	정신과 전문 병원이나 전문의원	종교 단체의 성직자	보건소나 정신보건 센터	계
성 별	(90)	52.2	26.7	7.8	4.4	3.3	3.3	1.1	1.1	100.0
남 자	(33)	45.5	24.2	12.1	9.1	6.1	0.0	0.0	3.0	100.0
여 자	(57)	56.1	28.1	5.3	1.8	1.8	5.3	1.8	0.0	100.0
연 령										
15 - 19 세	(5)	60.0	0.0	0.0	0.0	40.0	0.0	0.0	0.0	100.0
20 대	(25)	60.0	36.0	0.0	4.0	0.0	0.0	0.0	0.0	100.0
30 대	(33)	57.6	27.3	3.0	3.0	0.0	6.1	3.0	0.0	100.0
40 대	(21)	42.9	19.0	23.8	9.5	0.0	0.0	0.0	4.8	100.0
50 대	(5)	20.0	20.0	20.0	0.0	20.0	20.0	0.0	0.0	100.0
60 세 - 65 세	(1)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2)	50.0	50.0	0.0	0.0	0.0	0.0	0.0	0.0	100.0
고 졸	(45)	51.1	22.2	8.9	0.0	6.7	6.7	2.2	2.2	100.0
대 재 이 상	(43)	53.5	30.2	7.0	9.3	0.0	0.0	0.0	0.0	100.0
경 제 수 준										
상	(2)	50.0	0.0	0.0	0.0	0.0	50.0	0.0	0.0	100.0
중	(63)	49.2	28.6	11.1	6.3	3.2	1.6	0.0	0.0	100.0
하	(25)	60.0	24.0	0.0	0.0	4.0	4.0	4.0	4.0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40)	60.0	25.0	2.5	2.5	5.0	0.0	2.5	2.5	100.0
기 혼	(46)	41.3	30.4	13.0	6.5	2.2	6.5	0.0	0.0	100.0
기 타	(4)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 은 편	(32)	43.8	37.5	3.1	6.3	6.3	0.0	0.0	3.1	100.0
보 통	(48)	56.3	22.9	6.3	4.2	2.1	6.3	2.1	0.0	100.0
좋 지 않 은 편	(10)	60.0	10.0	30.0	0.0	0.0	0.0	0.0	0.0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 은 편	(38)	55.3	31.6	7.9	2.6	2.6	0.0	0.0	0.0	100.0
보 통	(37)	56.8	21.6	2.7	5.4	5.4	5.4	0.0	2.7	100.0
좋 지 않 은 편	(15)	33.3	26.7	20.0	6.7	0.0	6.7	6.7	0.0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5)	40.0	0.0	20.0	0.0	0.0	20.0	20.0	0.0	100.0
고 위 험 군	(45)	48.9	33.3	4.4	4.4	4.4	2.2	0.0	2.2	100.0
위 험 군	(39)	59.0	23.1	7.7	5.1	2.6	2.6	0.0	0.0	100.0
저 위 험 군	(1)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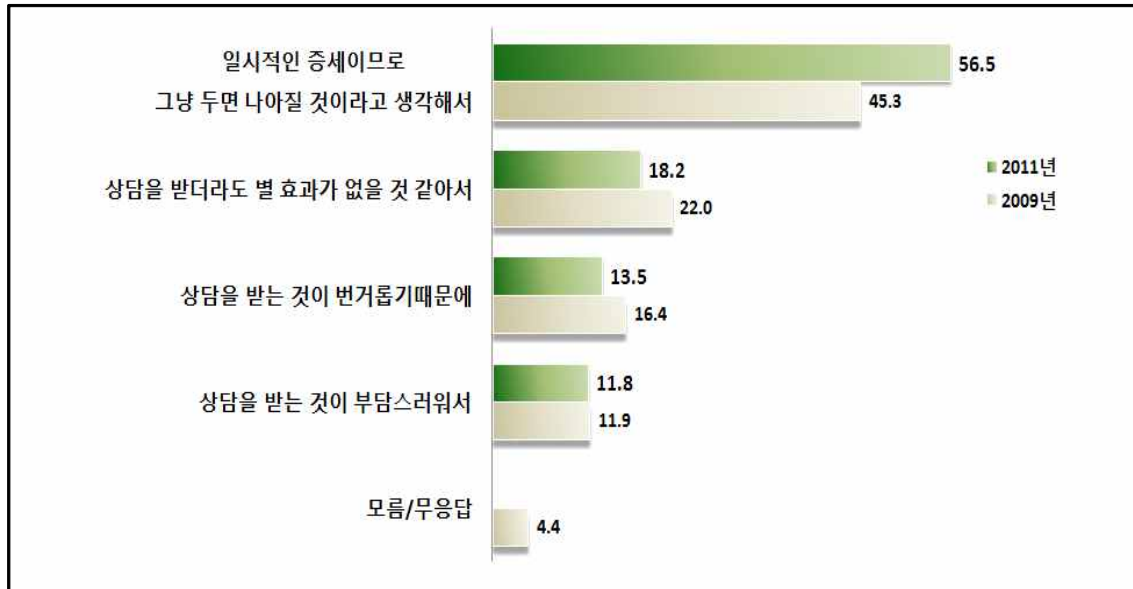
* 응답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4)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하지 않은 이유

문2-3]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 이
나 상담을 받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림 12>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11년 조사에서 우울증 경험 시 도움을 받지 않은 응답자 170명명이 대상임.

* 2009년 조사에서 우울증 경험 시 도움을 받지 않은 응답자 159명명이 대상임.

전 체

- 우울증 경험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로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96명(56.5%)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상담을 받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31명, 18.2%), '상담을 받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23명, 13.5%), '상담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20명, 11.8%)의 순임.
-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 11.2%p 증가한 반면, '상담을 받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는 응답은 3.8%p 감소함.

응답자 특성별

- 우울증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임(64.3%), △스트레스 위험군(7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상담을 받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고, △남자(21.4%), △기혼(20.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14>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Base=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은 응답자	사례수 (명)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담을 받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상담을 받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계
전체	(170)	56.5	18.2	13.5	11.8	100.0
성별						
남자	(84)	57.1	21.4	13.1	8.3	100.0
여자	(86)	55.8	15.1	14.0	15.1	100.0
학력						
중졸 이하	(21)	47.6	23.8	9.5	19.0	100.0
고졸	(66)	51.5	18.2	21.2	9.1	100.0
대재 이상	(83)	62.7	16.9	8.4	12.0	100.0
경제수준						
상	(5)	60.0	20.0	0.0	20.0	100.0
중	(117)	58.1	17.1	15.4	9.4	100.0
하	(47)	51.1	21.3	10.6	17.0	100.0
모름 /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혼인상태						
미혼	(72)	56.9	15.3	12.5	15.3	100.0
기혼	(94)	56.4	20.2	13.8	9.6	100.0
기타	(4)	50.0	25.0	25.0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6)	64.3	16.1	12.5	7.1	100.0
보통	(90)	52.2	18.9	13.3	15.6	100.0
좋지 않은 편	(24)	54.2	20.8	16.7	8.3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2)	59.7	17.7	12.9	9.7	100.0
보통	(83)	59.0	16.9	9.6	14.5	100.0
좋지 않은 편	(25)	40.0	24.0	28.0	8.0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고위험군	(24)	33.3	29.2	25.0	12.5	100.0
고위험군	(84)	53.6	20.2	11.9	14.3	100.0
위험군	(60)	70.0	10.0	11.7	8.3	100.0
저위험군	(2)	50.0	50.0	0.0	0.0	100.0

* 응답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4. 음주문제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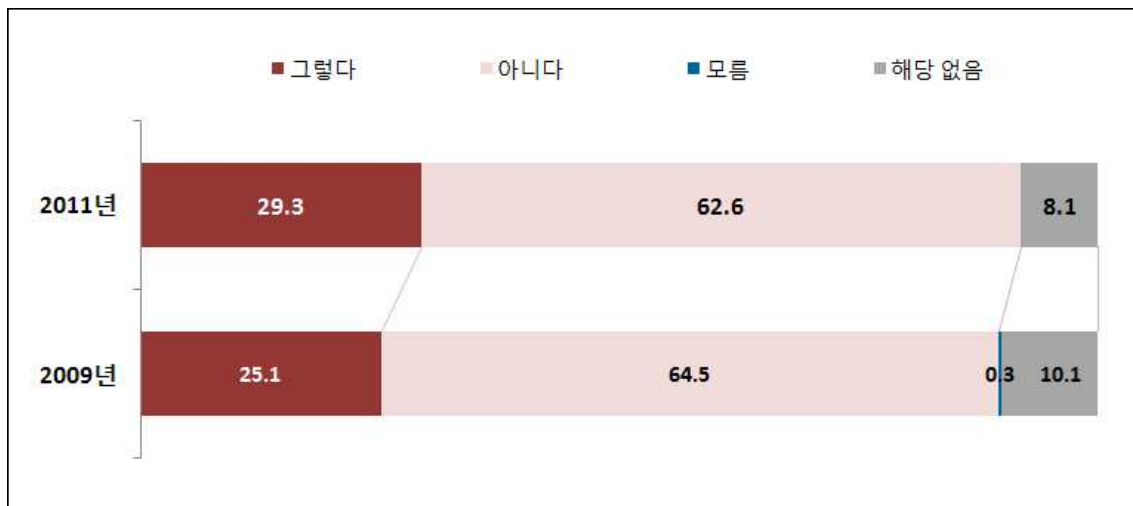
1)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경험

문3]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_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3-1]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림 13>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경험 유무

(단위: %)



전 체

- 전체 응답자 중 29.3%가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그렇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 4.2%p 증가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남자(42.9%), △30대(38.9%)와 40대(34.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15>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경험 유무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해당 없음	계
■ 전 체 ■	(1000)	29.3	62.6	8.1	100.0
성 별					
남 자	(499)	42.9	52.3	4.8	100.0
여 자	(501)	15.8	72.9	11.4	100.0
연 령					
15 - 19 세	(84)	8.3	76.2	15.5	100.0
20 대	(202)	26.7	70.3	3.0	100.0
30 대	(239)	38.9	54.8	6.3	100.0
40 대	(222)	34.2	58.6	7.2	100.0
50 대	(192)	26.0	63.0	10.9	100.0
60 세 - 65 세	(61)	21.3	62.3	16.4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23.2	65.9	11.0	100.0
고 졸	(478)	28.5	61.1	10.5	100.0
대 재 이 상	(440)	31.4	63.6	5.0	100.0
경 제 수 준					
상	(39)	25.6	71.8	2.6	100.0
중	(748)	27.3	65.2	7.5	100.0
하	(212)	36.8	51.9	11.3	100.0
모 름 / 무응답	(1)	100.0	0.0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잘 은 편	(491)	25.9	66.4	7.7	100.0
보 통	(424)	31.8	60.1	8.0	100.0
잘 지 않 은 편	(85)	36.5	52.9	10.6	100.0
정신적건강상태					
잘 은 편	(604)	25.0	66.2	8.8	100.0
보 통	(337)	36.2	57.9	5.9	100.0
잘 지 않 은 편	(59)	33.9	52.5	13.6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54.1	43.2	2.7	100.0
고 위 험 군	(340)	38.8	53.8	7.4	100.0
위 험 군	(558)	23.3	67.4	9.3	100.0
저 위 험 군	(65)	16.9	78.5	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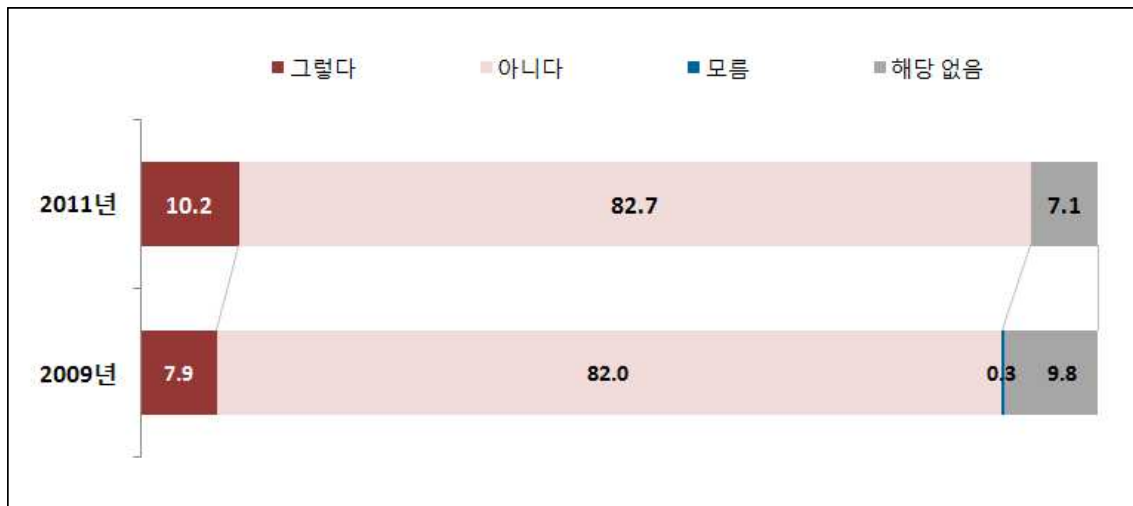
2)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험

문3]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_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3-2]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그림 14>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험 유무

(단위: %)



전 체

- 전체 응답자 중 10.2%만이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함.
- '그렇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 2.3%p 증가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 △남자(17.0%), △30대(16.7%), △자영업(18.4%) 종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16>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험 유무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해당 없음	계
■ 전 체 ■	(1000)	10.2	82.7	7.1	100.0
성 별					
남 자	(499)	17.0	78.6	4.4	100.0
여 자	(501)	3.4	86.8	9.8	100.0
연 령					
15 - 19 세	(84)	2.4	82.1	15.5	100.0
20 대	(202)	5.4	92.1	2.5	100.0
30 대	(239)	16.7	78.2	5.0	100.0
40 대	(222)	10.8	83.8	5.4	100.0
50 대	(192)	9.9	80.2	9.9	100.0
60 세 - 65 세	(61)	9.8	73.8	16.4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8.5	80.5	11.0	100.0
고 졸	(478)	9.6	81.4	9.0	100.0
대 재 이 상	(440)	11.1	84.5	4.3	100.0
직 업					
사무/관리/전문직	(310)	13.2	83.5	3.2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26)	9.5	84.1	6.3	100.0
생산/기술/노무직	(71)	12.7	83.1	4.2	100.0
자 영 업	(98)	18.4	73.5	8.2	100.0
학 생	(160)	4.4	85.0	10.6	100.0
주 부	(182)	4.4	84.6	11.0	100.0
무직/퇴직/기타	(51)	13.7	76.5	9.8	100.0
모 름 / 무응답	(2)	0.0	100.0	0.0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365)	9.0	84.7	6.3	100.0
기 혼	(598)	11.0	81.4	7.5	100.0
기 타	(37)	8.1	83.8	8.1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 은 편	(491)	7.7	85.7	6.5	100.0
보 통	(424)	12.0	80.7	7.3	100.0
좋 지 않 은 편	(85)	15.3	75.3	9.4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 은 편	(604)	7.5	84.8	7.8	100.0
보 통	(337)	13.1	81.3	5.6	100.0
좋 지 않 은 편	(59)	22.0	69.5	8.5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32.4	67.6	0.0	100.0
고 위 험 군	(340)	14.7	79.7	5.6	100.0
위 험 군	(558)	6.8	84.4	8.8	100.0
저 위 험 군	(65)	3.1	92.3	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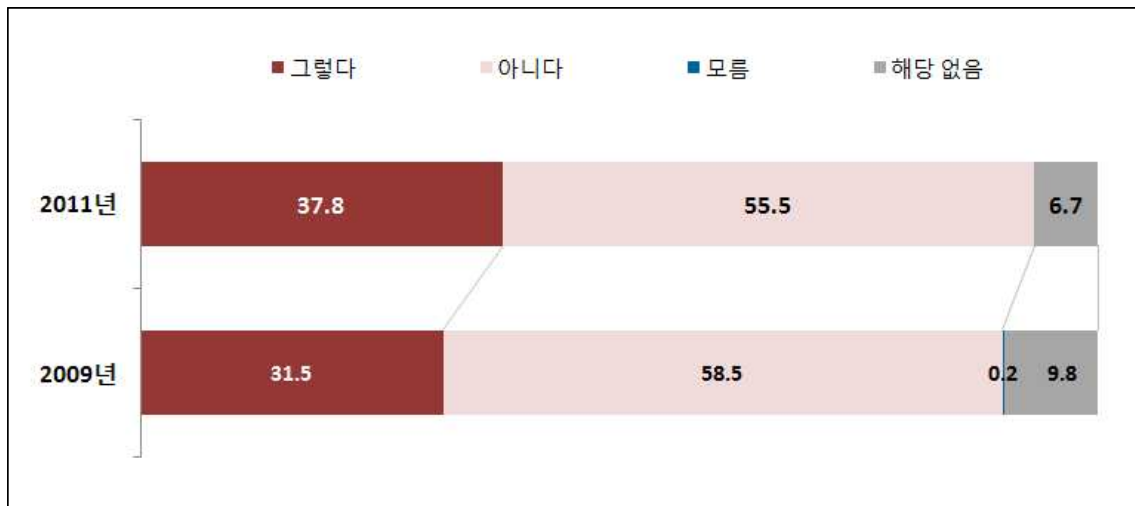
3)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험

문3]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_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3-3]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다.

<그림 15>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험 유무

(단위: %)



전 체

-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5.5%가 '아니다'라고 응답함.
-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 6.3%p 증가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 △남자(47.3%), △30대(49.4%)와 20대(43.6%), △도심/서북지역(44.3%), △미혼(40.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17>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험 유무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해당 없음	계
■ 전 체 ■	(1000)	37.8	55.5	6.7	100.0
성 별					
남 자	(499)	47.3	49.1	3.6	100.0
여 자	(501)	28.3	61.9	9.8	100.0
연 령					
15 - 19 세	(84)	14.3	70.2	15.5	100.0
20 대	(202)	43.6	55.0	1.5	100.0
30 대	(239)	49.4	46.0	4.6	100.0
40 대	(222)	39.2	55.4	5.4	100.0
50 대	(192)	30.7	59.9	9.4	100.0
60 세 - 65 세	(61)	23.0	60.7	16.4	100.0
거 주 지 역					
도심/ 서북지역	(174)	44.3	52.9	2.9	100.0
동 북 부 지 역	(318)	34.0	58.5	7.5	100.0
남 부 지 역	(339)	39.2	52.8	8.0	100.0
강 남 3 구	(169)	35.5	58.0	6.5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24.4	64.6	11.0	100.0
고 졸	(478)	33.3	57.9	8.8	100.0
대 재 이 상	(440)	45.2	51.1	3.6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365)	40.5	54.2	5.2	100.0
기 혼	(598)	36.6	55.9	7.5	100.0
기 타	(37)	29.7	62.2	8.1	100.0
신체적건강상태					
잘 은 편	(491)	34.0	59.9	6.1	100.0
보 통	(424)	40.8	52.4	6.8	100.0
잘 지 않 은 편	(85)	44.7	45.9	9.4	100.0
정신적건강상태					
잘 은 편	(604)	33.3	59.6	7.1	100.0
보 통	(337)	43.0	51.3	5.6	100.0
잘 지 않 은 편	(59)	54.2	37.3	8.5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62.2	37.8	0.0	100.0
고 위 험 군	(340)	45.6	49.1	5.3	100.0
위 험 군	(558)	33.9	57.9	8.2	100.0
저 위 험 군	(65)	16.9	78.5	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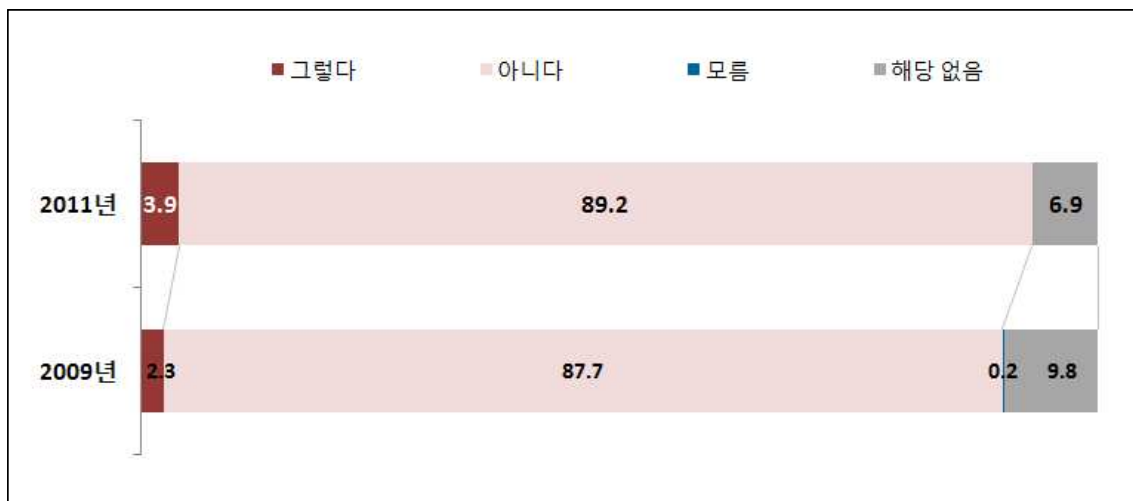
4)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경험

문3]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_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3-4]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그림 16>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경험 유무

(단위: %)



전 체

-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89.2%가 '아니다'라고 응답함.
-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 1.6%p 증가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남자(6.0%), △60세~65세(8.2%), △자영업(9.2%)과 생산/기술/노무직(7.0%)종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18>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경험 유무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해당 없음	계
■ 전 체 ■	(1000)	3.9	89.2	6.9	100.0
성 별					
남 자	(499)	6.0	90.4	3.6	100.0
여 자	(501)	1.8	88.0	10.2	100.0
연 령					
15 - 19 세	(84)	1.2	83.3	15.5	100.0
20 대	(202)	4.0	94.6	1.5	100.0
30 대	(239)	4.2	90.4	5.4	100.0
40 대	(222)	2.7	91.9	5.4	100.0
50 대	(192)	4.7	85.9	9.4	100.0
60 세 - 65 세	(61)	8.2	75.4	16.4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6.1	82.9	11.0	100.0
고 졸	(478)	4.4	86.4	9.2	100.0
대 재 이 상	(440)	3.0	93.4	3.6	100.0
직 업					
사무/관리/전문직	(310)	2.6	94.8	2.6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26)	5.6	87.3	7.1	100.0
생산/기술/노무직	(71)	7.0	88.7	4.2	100.0
자 영 업	(98)	9.2	82.7	8.2	100.0
학 생	(160)	2.5	88.1	9.4	100.0
주 부	(182)	1.6	86.8	11.5	100.0
무직/퇴직/기타	(51)	5.9	84.3	9.8	100.0
모 름 / 무응답	(2)	0.0	100.0	0.0	100.0
경 제 수 준					
상	(39)	2.6	97.4	0.0	100.0
중	(748)	3.9	89.7	6.4	100.0
하	(212)	4.2	85.8	9.9	100.0
모 름 / 무응답	(1)	0.0	100.0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 은 편	(491)	2.6	91.2	6.1	100.0
보 통	(424)	4.5	88.2	7.3	100.0
좋 지 않 은 편	(85)	8.2	82.4	9.4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 은 편	(604)	2.5	90.4	7.1	100.0
보 통	(337)	4.7	89.3	5.9	100.0
좋 지 않 은 편	(59)	13.6	76.3	10.2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27.0	73.0	0.0	100.0
고 위 험 군	(340)	4.1	90.0	5.9	100.0
위 험 군	(558)	2.5	89.2	8.2	100.0
저 위 험 군	(65)	1.5	93.8	4.6	100.0

5) 음주 관련 도움 요청 경험

문4] _님은 음주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림 17> 음주 관련 도움 요청 경험 유무

(단위: %)



전 체

- 음주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4.1%임.
- 2009년에 비해 음주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1.6%p 증가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음주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남자(5.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아무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여자(97.0%), △60~65세(10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19> 음주 관련 도움 요청 경험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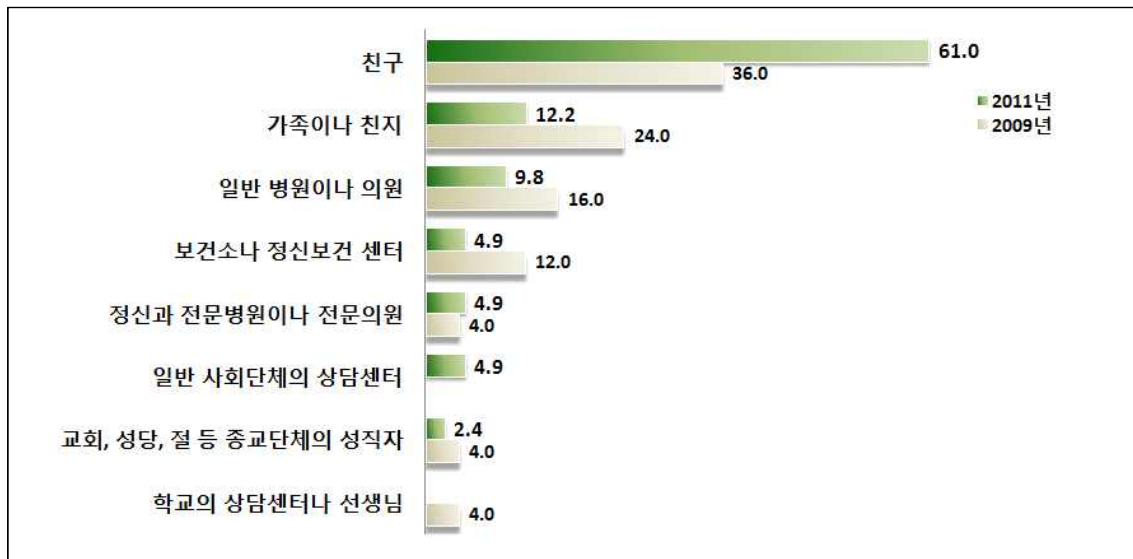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아무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	계
■ 전 체 ■	(1000)	95.9	4.1	100.0
성 별				
남 자	(499)	94.8	5.2	100.0
여 자	(501)	97.0	3.0	100.0
연 령				
15 - 19 세	(84)	95.2	4.8	100.0
20 대	(202)	97.0	3.0	100.0
30 대	(239)	95.4	4.6	100.0
40 대	(222)	95.5	4.5	100.0
50 대	(192)	94.8	5.2	100.0
60 세 - 65 세	(61)	100.0	0.0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96.3	3.7	100.0
고 졸	(478)	95.2	4.8	100.0
대 재 이 상	(440)	96.6	3.4	100.0
경 제 수 준				
상	(39)	97.4	2.6	100.0
중	(748)	96.0	4.0	100.0
하	(212)	95.3	4.7	100.0
모 름 / 무응답	(1)	100.0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종 은 편	(491)	97.1	2.9	100.0
보 통	(424)	94.6	5.4	100.0
종 지 않 은 편	(85)	95.3	4.7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종 은 편	(604)	97.5	2.5	100.0
보 통	(337)	94.1	5.9	100.0
종 지 않 은 편	(59)	89.8	10.2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91.9	8.1	100.0
고 위 험 군	(340)	94.1	5.9	100.0
위 험 군	(558)	96.8	3.2	100.0
저 위 험 군	(65)	100.0	0.0	100.0

6) 음주 관련 도움 요청 대상

문4-1]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다면) 다음 중 누구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나요?

<그림 18> 음주 관련 도움 요청 대상

(단위: %)



* '학교의 상담센터나 선생님'은 응답되지 않았음.

* 2011년 음주 관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응답자 41명이 대상임.

* 2009년 음주 관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응답자 25명이 대상임.

전 체

- 음주 관련 도움을 받았거나 상담을 했던 대상으로 '친구'라는 응답이 25명(6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지'(5명, 12.2%), '일반 병원이나 의원'(4명, 9.8%) 등의 순임.
- '친구'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응답은 2009년에 비해 25%p가 증가한 반면, '가족이나 친지'에게 도움을 요청한 응답은 22.8%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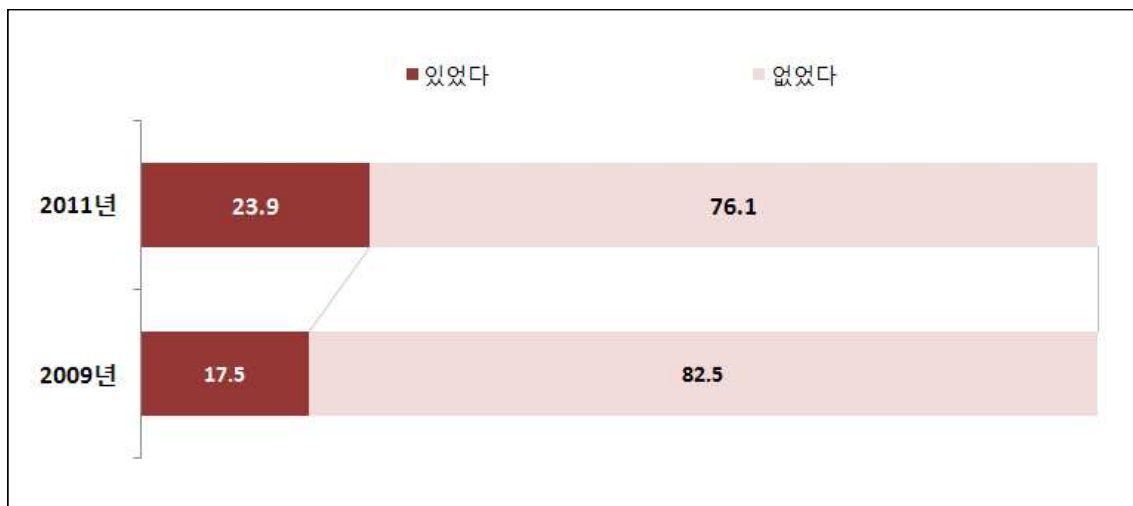
5. 자살 시도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1) 자살 생각 경험

문5] __님은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림 19> 자살 생각 경험 유무

(단위: %)



전 체

-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3.9%임.
-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 6.4%p 증가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여자(28.7%), △40대(27.5%) △무직/퇴직/기타(33.3%)와 영업/판매/서비스직(32.5%)종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20> 자살 생각 경험 유무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있었다	없었다	계
■ 전 체 ■	(1000)	23.9	76.1	100.0
성 별				
남 자	(499)	19.0	81.0	100.0
여 자	(501)	28.7	71.3	100.0
연 령				
15 - 19 세	(84)	21.4	78.6	100.0
20 대	(202)	22.3	77.7	100.0
30 대	(239)	24.3	75.7	100.0
40 대	(222)	27.5	72.5	100.0
50 대	(192)	24.0	76.0	100.0
60 세 - 65 세	(61)	18.0	82.0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30.5	69.5	100.0
고 졸	(478)	26.6	73.4	100.0
대 재 이 상	(440)	19.8	80.2	100.0
직 업				
사무/관리/전문직	(310)	18.4	81.6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26)	32.5	67.5	100.0
생산/기술/노무직	(71)	25.4	74.6	100.0
자 영 업	(98)	26.5	73.5	100.0
학 생	(160)	21.3	78.8	100.0
주 부	(182)	25.3	74.7	100.0
무직/퇴직/기타	(51)	33.3	66.7	100.0
모 름 / 무응답	(2)	0.0	100.0	100.0
경 제 수 준				
상	(39)	5.1	94.9	100.0
중	(748)	20.2	79.8	100.0
하	(212)	40.6	59.4	100.0
모 름 / 무응답	(1)	0.0	10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중 은 편	(491)	14.7	85.3	100.0
보 통	(424)	29.0	71.0	100.0
중 지 않 은 편	(85)	51.8	48.2	100.0
정신적건강상태				
중 은 편	(604)	15.2	84.8	100.0
보 통	(337)	31.8	68.2	100.0
중 지 않 은 편	(59)	67.8	32.2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70.3	29.7	100.0
고 위 험 군	(340)	38.5	61.5	100.0
위 험 군	(558)	14.2	85.8	100.0
저 위 험 군	(65)	4.6	95.4	100.0

2) 자살 시도 경험

문5-1]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실제로 그런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림 20> 자살 시도 경험 유무

(단위: %)



* 2011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응답자 239명이 대상임.

* 2009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응답자 175명이 대상임.

전 체

-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239명 중 실제로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10.0%임.
- 실제로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2009년 조사에 비해 0.9%p 증가함.

응답자 특성별

- '실제로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남자(12.6%), △자영업(23.1%)종사자, △월가구소득 '300~399만원'(17.0%)과 '500만원 이상'(14.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21> 자살 시도 경험 유무

(단위 : %)

Base=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사례수 (명)	있었다	없었다	계
전체	(239)	10.0	90.0	100.0
성별				
남자	(95)	12.6	87.4	100.0
여자	(144)	8.3	91.7	100.0
연령				
15 - 19 세	(18)	16.7	83.3	100.0
20 대	(45)	4.4	95.6	100.0
30 대	(58)	13.8	86.2	100.0
40 대	(61)	6.6	93.4	100.0
50 대	(46)	13.0	87.0	100.0
60 세 - 65 세	(11)	9.1	90.9	100.0
학력				
중졸 이하	(25)	12.0	88.0	100.0
고졸	(127)	9.4	90.6	100.0
대재 이상	(87)	10.3	89.7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직	(57)	8.8	91.2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41)	9.8	90.2	100.0
생산/기술/노무직	(18)	0.0	100.0	100.0
자영업	(26)	23.1	76.9	100.0
학생	(34)	8.8	91.2	100.0
주부	(46)	8.7	91.3	100.0
무직/퇴직/기타	(17)	11.8	88.2	100.0
월 가구 소득				
99 만 원 이 하	(10)	0.0	100.0	100.0
100- 199 만 원	(32)	6.3	93.8	100.0
200- 299 만 원	(62)	6.5	93.5	100.0
300- 399 만 원	(47)	17.0	83.0	100.0
400- 499 만 원	(30)	6.7	93.3	100.0
500 만 원 이 상	(47)	14.9	85.1	100.0
모름 / 무응답	(11)	9.1	90.9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72)	5.6	94.4	100.0
보통	(123)	12.2	87.8	100.0
좋지 않은 편	(44)	11.4	88.6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92)	6.5	93.5	100.0
보통	(107)	11.2	88.8	100.0
좋지 않은 편	(40)	15.0	85.0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26)	30.8	69.2	100.0
고 위 험 군	(131)	9.9	90.1	100.0
위 험 군	(79)	3.8	96.2	100.0
저 위 험 군	(3)	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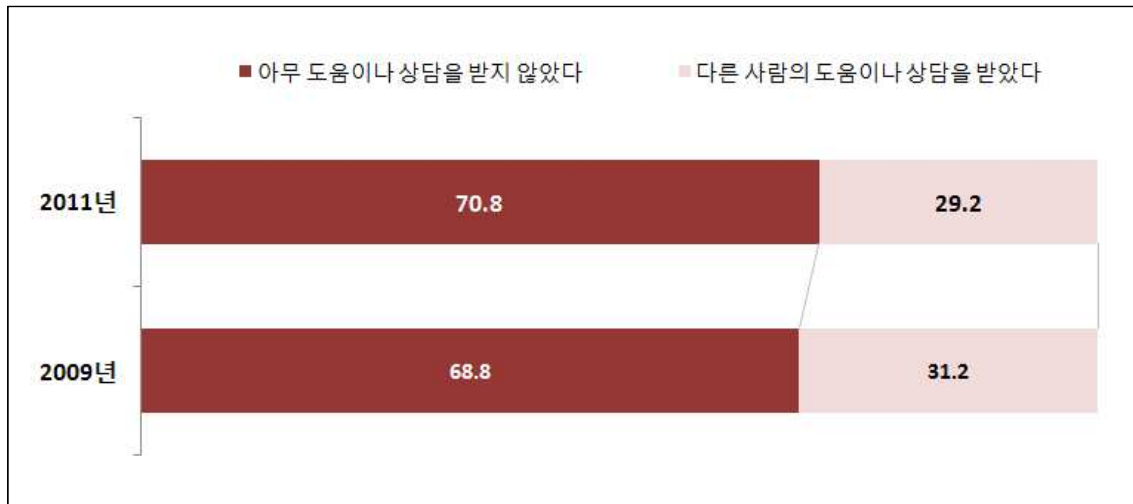
* 응답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함.

3) 자살 시도 시 도움 요청 경험

문5-2]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림 21> 자살 시도 시 도움 요청 경험

(단위: %)



- * 2011년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 적이 있는 응답자 24명이 대상임.
- * 2009년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 적이 있는 응답자 16명이 대상임.
- * 본 문항은 응답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전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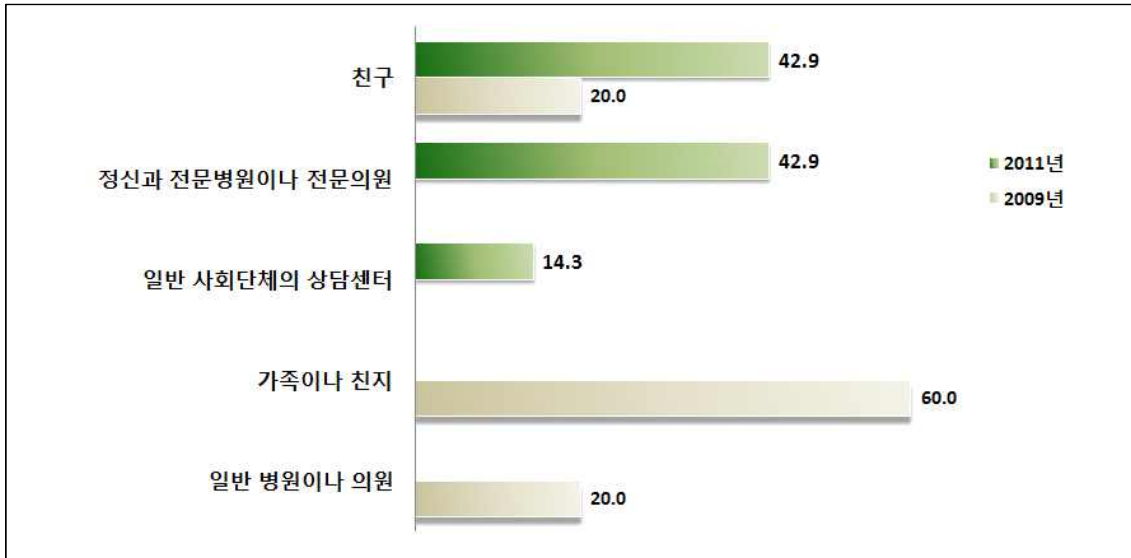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실제로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24명 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29.2%(7명)임.
-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 2%p 감소함.

4) 자살 시도 시 도움 요청 대상

문5-3]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다면) 다음 중 누구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나요?

<그림 22> 자살 시도 시 도움 요청 대상

(단위: %)



- * 2011년 자살 시도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 7명이 대상임.
- * 2009년 자살 시도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 5명이 대상임.
- * 본 문항은 응답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전 체

- 자살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자 7명이 도움을 요청한 대상으로 '친구'와 '정신과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3명(42.9%)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일반 사회단체의 상담센터'(1명, 14.3%)임.
- 2009년 조사에서는 자살 시도 시 '가족이나 친지'에게 도움을 요청한 응답이 많았으나, 2011년 조사에서는 '친구'와 '정신과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이 높음.

6. 스트레스, 음주, 우울증 등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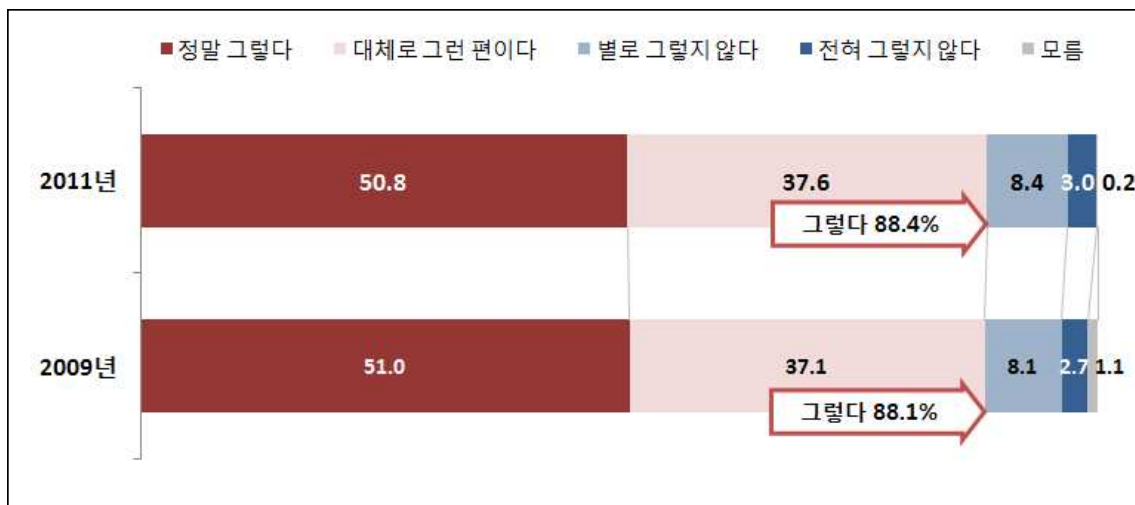
1) 스트레스를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문6]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6-1) 스트레스도 심각한 질병이다.

<그림 23> 스트레스를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단위: %)



전 체

- '스트레스도 심각한 질병이다'라는 말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0.8%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7.6%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88.4%가 스트레스를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1.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2009년 조사 결과와 큰 차이 없음.

응답자 특성별

- '스트레스도 심각한 질병이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30대(95.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22> 스트레스를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계
전체	(1000)	50.8	37.6	88.4	8.4	3.0	11.4	0.2	100.0
성별									
남자	(499)	51.5	35.9	87.4	10.0	2.4	12.4	0.2	100.0
여자	(501)	50.1	39.3	89.4	6.8	3.6	10.4	0.2	100.0
연령									
15 - 19 세	(84)	35.7	48.8	84.5	14.3	1.2	15.5	0.0	100.0
20 대	(202)	51.5	35.1	86.6	7.4	5.9	13.4	0.0	100.0
30 대	(239)	61.1	34.7	95.8	3.8	0.4	4.2	0.0	100.0
40 대	(222)	49.5	39.6	89.2	6.8	3.6	10.4	0.5	100.0
50 대	(192)	47.9	38.0	85.9	10.4	3.1	13.5	0.5	100.0
60 세 - 65 세	(61)	42.6	32.8	75.4	21.3	3.3	24.6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82)	36.6	39.0	75.6	18.3	4.9	23.2	1.2	100.0
고졸	(478)	52.1	37.7	89.7	7.3	2.7	10.0	0.2	100.0
대재 이상	(440)	52.0	37.3	89.3	7.7	3.0	10.7	0.0	100.0
경제수준									
상	(39)	48.7	35.9	84.6	10.3	5.1	15.4	0.0	100.0
중	(748)	50.3	37.4	87.7	8.8	3.2	12.0	0.3	100.0
하	(212)	53.3	38.2	91.5	6.6	1.9	8.5	0.0	100.0
모름 /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491)	48.1	39.1	87.2	8.8	3.7	12.4	0.4	100.0
보통	(424)	52.8	35.8	88.7	8.5	2.8	11.3	0.0	100.0
좋지 않은 편	(85)	56.5	37.6	94.1	5.9	0.0	5.9	0.0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04)	47.8	39.1	86.9	8.8	4.0	12.7	0.3	100.0
보통	(337)	53.4	36.2	89.6	8.6	1.8	10.4	0.0	100.0
좋지 않은 편	(59)	66.1	30.5	96.6	3.4	0.0	3.4	0.0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고위험군	(37)	81.1	18.9	100.0	0.0	0.0	0.0	0.0	100.0
고위험군	(340)	50.9	41.2	92.1	7.1	0.9	7.9	0.0	100.0
위험군	(558)	48.2	37.6	85.8	9.5	4.3	13.8	0.4	100.0
저위험군	(65)	55.4	29.2	84.6	10.8	4.6	15.4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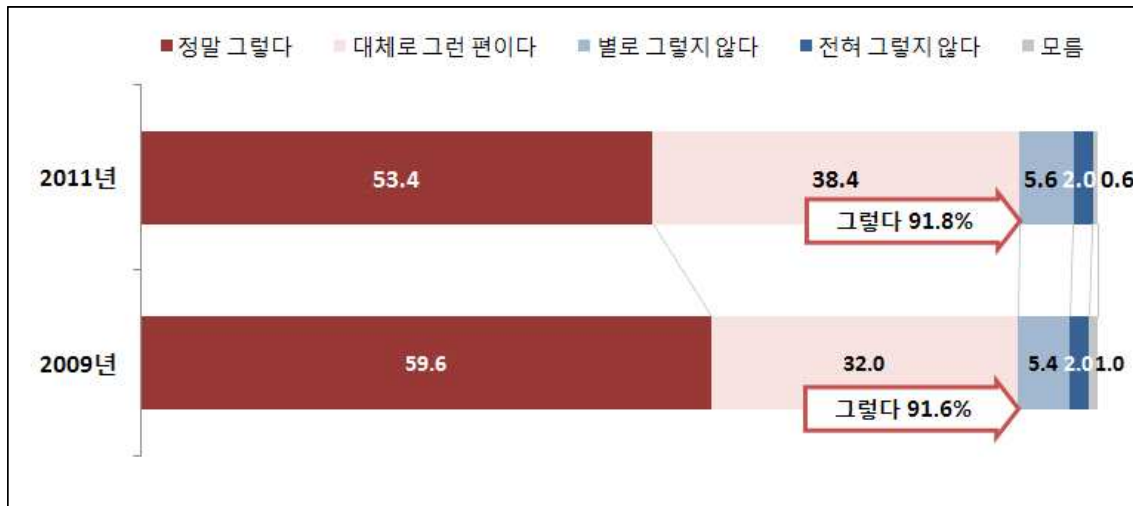
2)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문6]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6-2)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도 질병에 해당한다.

<그림 24>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단위: %)



전 체

-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도 질병에 해당한다'는 말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3.4%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8.4%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91.8%가 과도한 음주를 질병으로 인식 한다고 응답한 반면, 7.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정말 그렇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 6.2%p 감소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도 질병에 해당한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으며, △30대(95.0%), △경제수준 '중'(92.8%), △기혼(93.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23>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단위 : %)

Base=전체	사레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계
■ 전 체 ■	(1000)	53.4	38.4	91.8	5.6	2.0	7.6	0.6	100.0
성 별									
남 자	(499)	52.5	38.7	91.2	6.8	1.6	8.4	0.4	100.0
여 자	(501)	54.3	38.1	92.4	4.4	2.4	6.8	0.8	100.0
연 령									
15 - 19 세	(84)	41.7	46.4	88.1	8.3	3.6	11.9	0.0	100.0
20 대	(202)	55.0	35.6	90.6	7.4	2.0	9.4	0.0	100.0
30 대	(239)	55.2	39.7	95.0	3.8	1.3	5.0	0.0	100.0
40 대	(222)	55.9	36.0	91.9	5.9	1.8	7.7	0.5	100.0
50 대	(192)	53.6	38.0	91.7	4.7	2.1	6.8	1.6	100.0
60 세 - 65 세	(61)	47.5	41.0	88.5	4.9	3.3	8.2	3.3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50.0	35.4	85.4	9.8	1.2	11.0	3.7	100.0
고 졸	(478)	53.8	39.7	93.5	4.2	1.9	6.1	0.4	100.0
대 재 이 상	(440)	53.6	37.5	91.1	6.4	2.3	8.6	0.2	100.0
경 제 수 준									
상	(39)	38.5	46.2	84.6	12.8	2.6	15.4	0.0	100.0
중	(748)	53.6	39.2	92.8	4.7	2.1	6.8	0.4	100.0
하	(212)	55.2	34.4	89.6	7.5	1.4	9.0	1.4	100.0
모 름 /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365)	52.6	36.2	88.8	8.2	2.7	11.0	0.3	100.0
기 혼	(598)	53.5	39.8	93.3	4.2	1.7	5.9	0.8	100.0
기 타	(37)	59.5	37.8	97.3	2.7	0.0	2.7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 은 편	(491)	51.7	37.9	89.6	7.1	2.6	9.8	0.6	100.0
보 통	(424)	55.7	38.2	93.9	4.5	1.4	5.9	0.2	100.0
좋 지 않 은 편	(85)	51.8	42.4	94.1	2.4	1.2	3.5	2.4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 은 편	(604)	52.5	39.1	91.6	5.5	2.5	7.9	0.5	100.0
보 통	(337)	53.4	38.3	91.7	6.2	1.5	7.7	0.6	100.0
좋 지 않 은 편	(59)	62.7	32.2	94.9	3.4	0.0	3.4	1.7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64.9	24.3	89.2	8.1	0.0	8.1	2.7	100.0
고 위 험 군	(340)	55.3	37.9	93.2	4.1	2.1	6.2	0.6	100.0
위 험 군	(558)	50.9	40.5	91.4	6.5	1.6	8.1	0.5	100.0
저 위 험 군	(65)	58.5	30.8	89.2	4.6	6.2	10.8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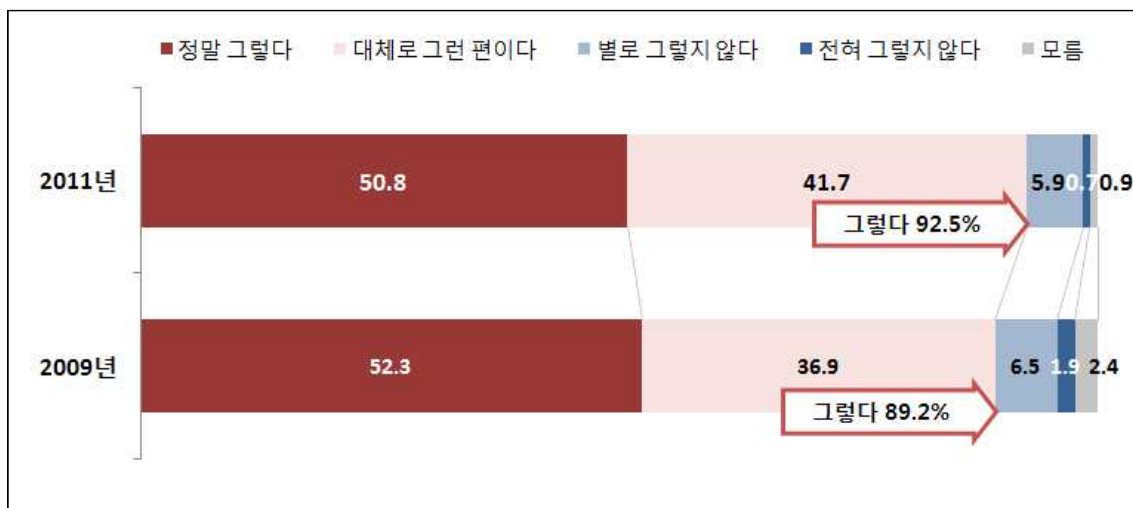
3) 우울증을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문6]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6-3)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그림 25> 우울증을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단위: %)



전 체

-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말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0.8%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1.7%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92.5%가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고 응답한 반면, 6.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그렇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 3.3%p 증가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임(95.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24> 우울증을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계
■ 전 체 ■	(1000)	50.8	41.7	92.5	5.9	0.7	6.6	0.9	100.0
성 별									
남 자	(499)	54.5	39.3	93.8	4.2	1.0	5.2	1.0	100.0
여 자	(501)	47.1	44.1	91.2	7.6	0.4	8.0	0.8	100.0
연 령									
15 - 19 세	(84)	57.1	35.7	92.9	7.1	0.0	7.1	0.0	100.0
20 대	(202)	53.0	43.1	96.0	4.0	0.0	4.0	0.0	100.0
30 대	(239)	51.9	40.6	92.5	5.9	1.3	7.1	0.4	100.0
40 대	(222)	49.1	40.5	89.6	8.6	0.9	9.5	0.9	100.0
50 대	(192)	49.5	43.2	92.7	3.6	1.0	4.7	2.6	100.0
60 세 - 65 세	(61)	41.0	49.2	90.2	8.2	0.0	8.2	1.6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51.2	39.0	90.2	8.5	0.0	8.5	1.2	100.0
고 졸	(478)	50.8	42.3	93.1	5.2	0.6	5.9	1.0	100.0
대 재 이 상	(440)	50.7	41.6	92.3	6.1	0.9	7.0	0.7	100.0
경 제 수 준									
상	(39)	51.3	43.6	94.9	2.6	2.6	5.1	0.0	100.0
중	(748)	49.5	42.8	92.2	6.3	0.7	7.0	0.8	100.0
하	(212)	55.2	37.7	92.9	5.2	0.5	5.7	1.4	100.0
모 름 /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365)	54.5	38.9	93.4	5.8	0.8	6.6	0.0	100.0
기 혼	(598)	48.7	43.6	92.3	5.9	0.5	6.4	1.3	100.0
기 타	(37)	48.6	37.8	86.5	8.1	2.7	10.8	2.7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종 은 편	(491)	51.9	43.0	94.9	4.1	0.4	4.5	0.6	100.0
보 통	(424)	50.2	40.6	90.8	6.8	0.9	7.8	1.4	100.0
종 지 않 은 편	(85)	47.1	40.0	87.1	11.8	1.2	12.9	0.0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종 은 편	(604)	52.8	42.7	95.5	3.1	0.7	3.8	0.7	100.0
보 통	(337)	47.2	40.7	87.8	9.8	0.9	10.7	1.5	100.0
종 지 않 은 편	(59)	50.8	37.3	88.1	11.9	0.0	11.9	0.0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45.9	40.5	86.5	13.5	0.0	13.5	0.0	100.0
고 위 험 군	(340)	47.9	42.6	90.6	7.6	1.2	8.8	0.6	100.0
위 험 군	(558)	51.4	42.3	93.7	4.7	0.5	5.2	1.1	100.0
저 위 험 군	(65)	63.1	32.3	95.4	3.1	0.0	3.1	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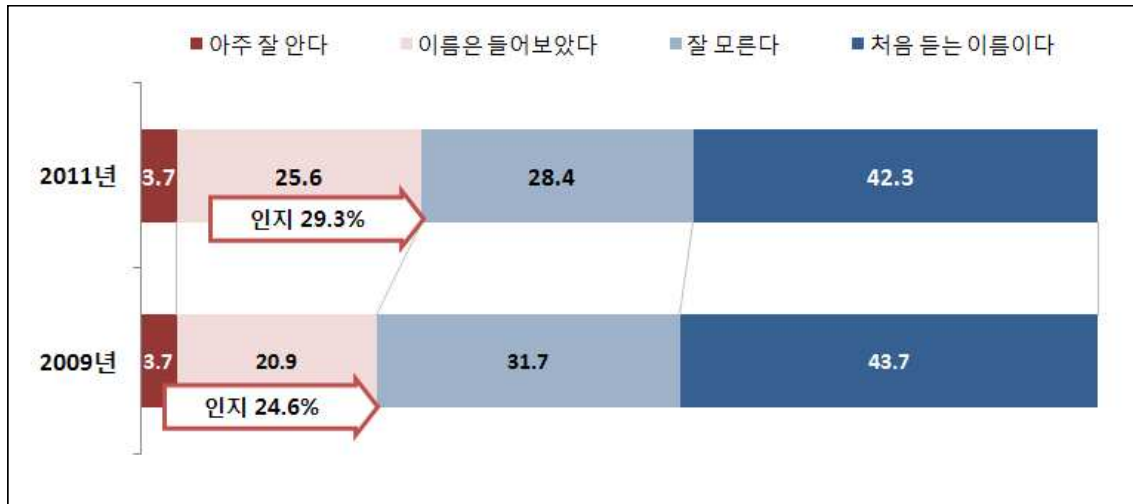
7.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및 이용의향

1)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문기 _님은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센터'를 알고 계십니까?

<그림 26>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단위: %)



전 체

-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센터를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가 '아주 잘 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5.6%가 '이름은 들어 보았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29.3%가 정신보건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70.7%는 모른다고 응답함.
- 2009년에 비해 정신보건센터 인지도가 4.7%p 증가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여자(32.9%), △50대(44.3%) 및 60~65세(44.3%), △기혼(33.4%), △스트레스 저위험군(35.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남자(74.3%), △15~19세(86.9%), △미혼(79.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25>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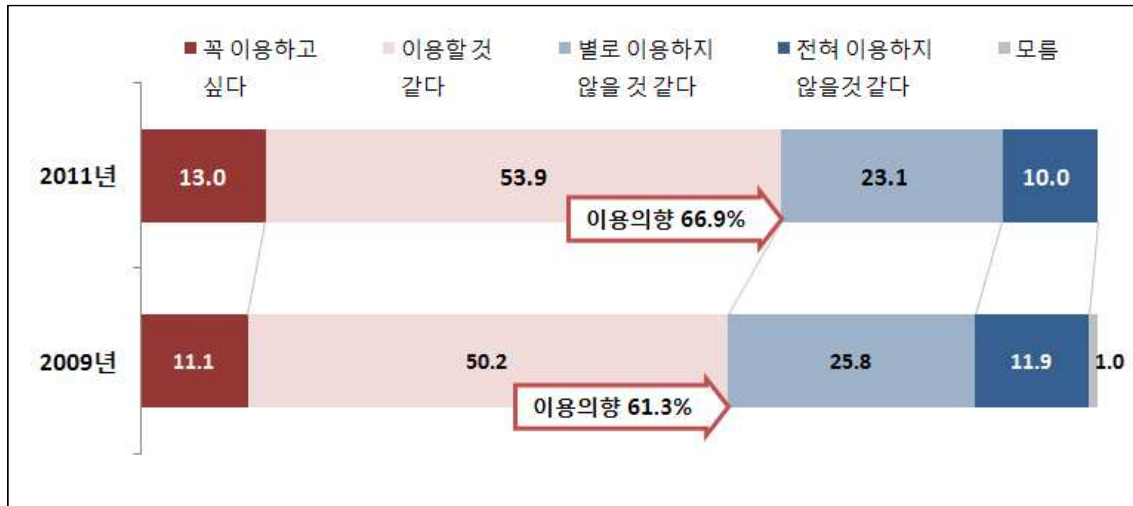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①아주 잘 안다	②이름은 들어보았다	①+②	③잘 모른다	④처음듣는 이름이다	③+④	계
전체	(1000)	3.7	25.6	29.3	28.4	42.3	70.7	100.0
성별								
남자	(499)	4.2	21.4	25.7	30.5	43.9	74.3	100.0
여자	(501)	3.2	29.7	32.9	26.3	40.7	67.1	100.0
연령								
15 - 19 세	(84)	0.0	13.1	13.1	22.6	64.3	86.9	100.0
20 대	(202)	4.5	20.3	24.8	20.3	55.0	75.2	100.0
30 대	(239)	2.9	20.9	23.8	28.9	47.3	76.2	100.0
40 대	(222)	4.5	23.9	28.4	39.6	32.0	71.6	100.0
50 대	(192)	5.2	39.1	44.3	26.0	29.7	55.7	100.0
60 세 - 65 세	(61)	1.6	42.6	44.3	27.9	27.9	55.7	100.0
학력								
중졸 이하	(82)	2.4	39.0	41.5	20.7	37.8	58.5	100.0
고졸	(478)	3.8	26.6	30.3	29.3	40.4	69.7	100.0
대재 이상	(440)	3.9	22.0	25.9	28.9	45.2	74.1	100.0
경제수준								
상	(39)	10.3	5.1	15.4	25.6	59.0	84.6	100.0
중	(748)	3.5	24.2	27.7	28.9	43.4	72.3	100.0
하	(212)	3.3	34.0	37.3	27.4	35.4	62.7	100.0
모름 /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혼인상태								
미혼	(365)	3.6	16.7	20.3	23.8	55.9	79.7	100.0
기혼	(598)	4.0	29.4	33.4	31.9	34.6	66.6	100.0
기타	(37)	0.0	51.4	51.4	16.2	32.4	48.6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491)	4.5	24.0	28.5	29.3	42.2	71.5	100.0
보통	(424)	2.8	26.9	29.7	28.3	42.0	70.3	100.0
좋지 않은 편	(85)	3.5	28.2	31.8	23.5	44.7	68.2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04)	3.3	26.0	29.3	29.0	41.7	70.7	100.0
보통	(337)	4.2	24.9	29.1	27.6	43.3	70.9	100.0
좋지 않은 편	(59)	5.1	25.4	30.5	27.1	42.4	69.5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고위험군	(37)	5.4	18.9	24.3	27.0	48.6	75.7	100.0
고위험군	(340)	3.2	27.6	30.9	29.7	39.4	69.1	100.0
위험군	(558)	3.2	24.7	28.0	27.8	44.3	72.0	100.0
저위험군	(65)	9.2	26.2	35.4	27.7	36.9	64.6	100.0

2)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의향

문8] _님은 스트레스, 우울증, 알코올의존성,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_님이나 가족을 위하여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림 27>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의향

(단위: %)



전 체

- '스트레스, 우울증, 알코올의존성,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본인이나 가족을 위하여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3.0%가 '꼭 이용하고 싶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3.9%가 '이용할 것 같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66.9%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33.1%는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 2009년에 비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의향이 5.6%p 증가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여자(73.7%), △20대(71.8%), △스트레스 고위험군(70.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남자(39.9%), △60~65세(42.6%), △영업/판매/서비스직(41.3%)종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26>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의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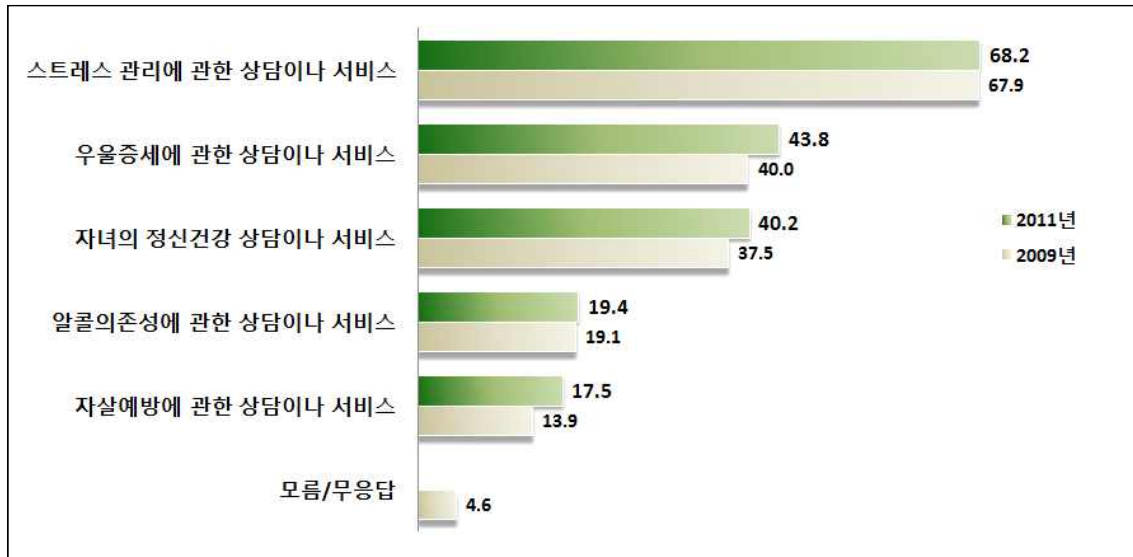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①꼭 이용하고 싶다	②이용할 것 같다	①+②	③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④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③+④	계
■ 전 체 ■	(1000)	13.0	53.9	66.9	23.1	10.0	33.1	100.0
성 별								
남 자	(499)	12.8	47.3	60.1	25.9	14.0	39.9	100.0
여 자	(501)	13.2	60.5	73.7	20.4	6.0	26.3	100.0
연 령								
15 - 19 세	(84)	9.5	52.4	61.9	23.8	14.3	38.1	100.0
20 대	(202)	9.9	61.9	71.8	21.8	6.4	28.2	100.0
30 대	(239)	11.3	56.5	67.8	23.0	9.2	32.2	100.0
40 대	(222)	13.1	53.2	66.2	24.3	9.5	33.8	100.0
50 대	(192)	19.8	46.9	66.7	18.8	14.6	33.3	100.0
60 세 - 65 세	(61)	13.1	44.3	57.4	36.1	6.6	42.6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12.2	50.0	62.2	29.3	8.5	37.8	100.0
고 졸	(478)	15.7	51.9	67.6	21.5	10.9	32.4	100.0
대 재 이 상	(440)	10.2	56.8	67.0	23.6	9.3	33.0	100.0
직 업								
사무/관리/전문직	(310)	14.5	49.4	63.9	25.8	10.3	36.1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26)	7.1	51.6	58.7	27.0	14.3	41.3	100.0
생산/기술/노무직	(71)	16.9	54.9	71.8	21.1	7.0	28.2	100.0
자 영 업	(98)	16.3	49.0	65.3	21.4	13.3	34.7	100.0
학 생	(160)	8.1	60.0	68.1	22.5	9.4	31.9	100.0
주 부	(182)	15.9	61.0	76.9	16.5	6.6	23.1	100.0
무직/퇴직/기타	(51)	11.8	51.0	62.7	27.5	9.8	37.3	100.0
모 름 / 무응답	(2)	0.0	50.0	50.0	50.0	0.0	50.0	100.0
경 제 수 준								
상	(39)	7.7	51.3	59.0	33.3	7.7	41.0	100.0
중	(748)	12.7	53.9	66.6	23.3	10.2	33.4	100.0
하	(212)	14.6	54.7	69.3	20.8	9.9	30.7	100.0
모 름 /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04)	10.3	54.3	64.6	24.2	11.3	35.4	100.0
보통	(337)	14.5	54.0	68.5	24.0	7.4	31.5	100.0
좋지 않은 편	(59)	32.2	49.2	81.4	6.8	11.9	18.6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10.8	51.4	62.2	24.3	13.5	37.8	100.0
고 위 험 군	(340)	15.9	54.4	70.3	21.2	8.5	29.7	100.0
위 험 군	(558)	10.6	55.2	65.8	24.4	9.9	34.2	100.0
저 위 험 군	(65)	20.0	41.5	61.5	21.5	16.9	38.5	100.0

3) 정신건강 관련 이용할 의향이 있는 서비스 종류(중복응답)

문8-1] _님이 이용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다음 중 어떤 상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중복응답)

<그림 28> 정신건강 관련 이용할 의향이 있는 서비스 종류(중복응답)

(단위: %)



- * 2011년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669명이 대상임.
- * 2009년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613명이 대상임.
- * 본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응답비율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전 체

-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 669명 중 이용하고 싶은 상담이나 서비스로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라는 응답이 68.2%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세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43.8%), '자녀의 정신건강 상담이나 서비스'(40.2%) 등의 순임.
- 2009년 조사 결과와 큰 차이 없으나, 각 항목의 응답 값이 조금씩 증가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상담이나 서비스로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라는 응답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경제수준은 낮을수록 높고, △15~19세(84.6%)와 20대(80.0%), △미혼(79.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27> 정신건강 관련 이용할 의향이 있는 서비스 종류(중복응답)

(단위 : %)

Base=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사례수 (명)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우울증세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자녀의 정신건강 상담이나 서비스	알코올의존성 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자살예방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전체	(669)	68.2	43.8	40.2	19.4	17.5
성별						
남자	(300)	68.7	38.3	33.0	23.7	19.7
여자	(369)	67.8	48.2	46.1	16.0	15.7
연령						
15 - 19 세	(52)	84.6	34.6	9.6	15.4	19.2
20 대	(145)	80.0	53.1	18.6	15.9	22.1
30 대	(162)	72.8	43.8	46.3	21.6	13.6
40 대	(147)	59.2	36.7	61.9	15.6	15.0
50 대	(128)	54.7	43.8	43.8	26.6	18.0
60 세 - 65 세	(35)	60.0	48.6	42.9	20.0	22.9
학력						
중졸 이하	(51)	58.8	43.1	43.1	27.5	27.5
고졸	(323)	65.6	42.7	45.8	19.5	17.0
대재 이상	(295)	72.5	45.1	33.6	18.0	16.3
경제수준						
상	(23)	65.2	30.4	26.1	13.0	21.7
중	(498)	67.1	43.2	40.4	18.9	16.7
하	(147)	72.8	47.6	41.5	22.4	19.7
모름 /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혼인상태						
미혼	(246)	79.7	50.0	17.1	23.6	24.4
기혼	(395)	61.5	39.2	53.9	17.5	13.2
기타	(28)	60.7	53.6	50.0	10.7	17.9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314)	69.1	39.8	39.8	20.7	19.1
보통	(296)	68.2	45.9	42.9	17.9	14.5
좋지 않은 편	(59)	62.7	54.2	28.8	20.3	23.7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390)	67.4	39.7	41.8	20.0	17.4
보통	(231)	68.8	45.5	39.0	18.6	15.2
좋지 않은 편	(48)	70.8	68.8	33.3	18.8	29.2
스트레스위험군						
초고위험군	(23)	60.9	60.9	26.1	21.7	30.4
고위험군	(239)	69.9	46.4	44.4	20.5	15.9
위험군	(367)	68.9	40.9	38.7	17.7	17.2
저위험군	(40)	55.0	45.0	37.5	27.5	22.5

4)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 인지 여부

문9] _님은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림 29>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 인지여부

(단위: %)



전 체

-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7.4%임.
- 2009년에 비해 '블루터치' 인지도가 2.4%p 증가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스트레스 저위험군(12.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연령은 낮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경제수준은 낮을수록 높음.

<표 28>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 인지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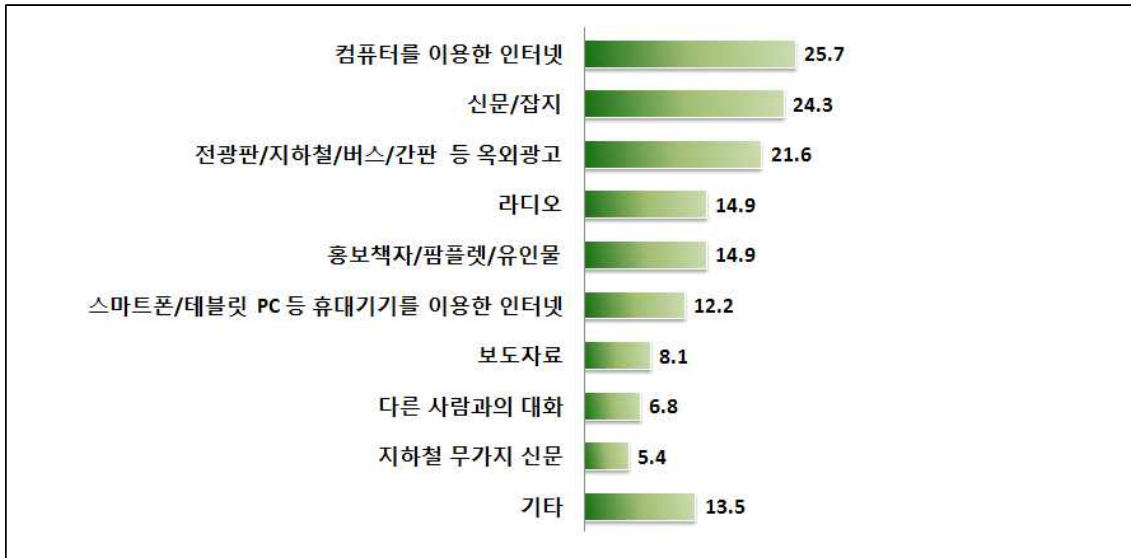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없다	계
■ 전 체 ■	(1000)	7.4	92.6	100.0
성 별				
남 자	(499)	6.0	94.0	100.0
여 자	(501)	8.8	91.2	100.0
연 령				
15 - 19 세	(84)	4.8	95.2	100.0
20 대	(202)	5.9	94.1	100.0
30 대	(239)	6.7	93.3	100.0
40 대	(222)	7.7	92.3	100.0
50 대	(192)	8.9	91.1	100.0
60 세 - 65 세	(61)	13.1	86.9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9.8	90.2	100.0
고 졸	(478)	7.7	92.3	100.0
대 재 이 상	(440)	6.6	93.4	100.0
경 제 수 준				
상	(39)	12.8	87.2	100.0
중	(748)	7.4	92.6	100.0
하	(212)	6.6	93.4	100.0
모 름 / 무응답	(1)	0.0	10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중 은 편	(491)	8.1	91.9	100.0
보 통	(424)	6.8	93.2	100.0
중 지 않 은 편	(85)	5.9	94.1	100.0
정신적건강상태				
중 은 편	(604)	7.6	92.4	100.0
보 통	(337)	7.7	92.3	100.0
중 지 않 은 편	(59)	3.4	96.6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8.1	91.9	100.0
고 위 험 군	(340)	8.5	91.5	100.0
위 험 군	(558)	6.1	93.9	100.0
저 위 험 군	(65)	12.3	87.7	100.0

5) '블루터치'를 접하게 된 경로(중복응답)

문9-1] "블루터치"를 어떤 경로를 통해 듣거나 알게 되셨습니까? 해당되는 경로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 30> '블루터치'를 접하게 된 경로(중복응답)

(단위: %)



전 체

-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74명에 대해 접촉 경로를 물은 결과,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25.7%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신문/잡지'(24.3%), '전광판/지하철/버스/간판 등 옥외광고'(21.6%) 등의 순임.

응답자 특성별

- '블루터치'를 접하게 된 경로로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이라는 응답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여자(27.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신문/잡지'라는 응답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여자(29.5%), △경제수준 '중'(29.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전광판/지하철/버스/간판 등 옥외광고'라는 응답은 △남자(26.7%),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임(25.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29> '블루터치'를 접하게 된 경로(중복응답)

(단위 : %)

Base=블루터치를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	사례수 (명)	컴퓨터 를 이용한 인터넷	신문/ 잡지	전광판/ 지하철 /버스/ 간판 등 옥외광고	라디오	홍보책자 /팜플렛 /유인물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휴대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보도 자료	다른 사람과 의 대화	지하철 무가지 신문	기타
전 체	(74)	25.7	24.3	21.6	14.9	14.9	12.2	8.1	6.8	5.4	13.5
성 별											
남 자	(30)	23.3	16.7	26.7	16.7	10.0	16.7	6.7	0.0	3.3	16.7
여 자	(44)	27.3	29.5	18.2	13.6	18.2	9.1	9.1	11.4	6.8	11.4
연 령											
15 - 19 세	(4)	50.0	25.0	25.0	0.0	25.0	0.0	0.0	0.0	0.0	0.0
20 대	(12)	33.3	0.0	58.3	0.0	8.3	16.7	8.3	0.0	8.3	8.3
30 대	(16)	12.5	25.0	25.0	12.5	6.3	0.0	0.0	6.3	0.0	31.3
40 대	(17)	17.6	11.8	11.8	29.4	11.8	29.4	5.9	11.8	11.8	5.9
50 대	(17)	41.2	23.5	5.9	11.8	29.4	11.8	23.5	5.9	5.9	17.6
60 세 - 65 세	(8)	12.5	87.5	12.5	25.0	12.5	0.0	0.0	12.5	0.0	0.0
학 력											
중 졸 이 하	(8)	12.5	25.0	25.0	37.5	12.5	0.0	12.5	0.0	0.0	25.0
고 졸	(37)	27.0	27.0	16.2	13.5	24.3	13.5	10.8	10.8	5.4	13.5
대 재 이 상	(29)	27.6	20.7	27.6	10.3	3.4	13.8	3.4	3.4	6.9	10.3
경 제 수 준											
상	(5)	40.0	20.0	20.0	0.0	0.0	0.0	0.0	0.0	0.0	40.0
중	(55)	25.5	29.1	20.0	14.5	16.4	12.7	9.1	3.6	5.5	10.9
하	(14)	21.4	7.1	28.6	21.4	14.3	14.3	7.1	21.4	7.1	14.3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40)	25.0	25.0	25.0	12.5	12.5	12.5	7.5	7.5	5.0	10.0
보통	(29)	27.6	24.1	17.2	13.8	13.8	13.8	10.3	0.0	3.4	17.2
좋지 않은 편	(5)	20.0	20.0	20.0	40.0	40.0	0.0	0.0	40.0	20.0	2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46)	32.6	26.1	19.6	15.2	4.3	15.2	6.5	4.3	4.3	13.0
보통	(26)	15.4	23.1	26.9	15.4	30.8	3.8	11.5	7.7	7.7	15.4
좋지 않은 편	(2)	0.0	0.0	0.0	0.0	50.0	50.0	0.0	50.0	0.0	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	0.0	33.3	0.0	33.3	0.0	66.7	0.0	0.0	0.0	0.0
고 위 험 군	(29)	27.6	17.2	24.1	17.2	24.1	10.3	6.9	10.3	6.9	17.2
위 험 군	(34)	26.5	26.5	23.5	14.7	5.9	11.8	11.8	0.0	5.9	14.7
저 위 험 군	(8)	25.0	37.5	12.5	0.0	25.0	0.0	0.0	25.0	0.0	0.0

* 응답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함.

8. 정신질환자 수용 관련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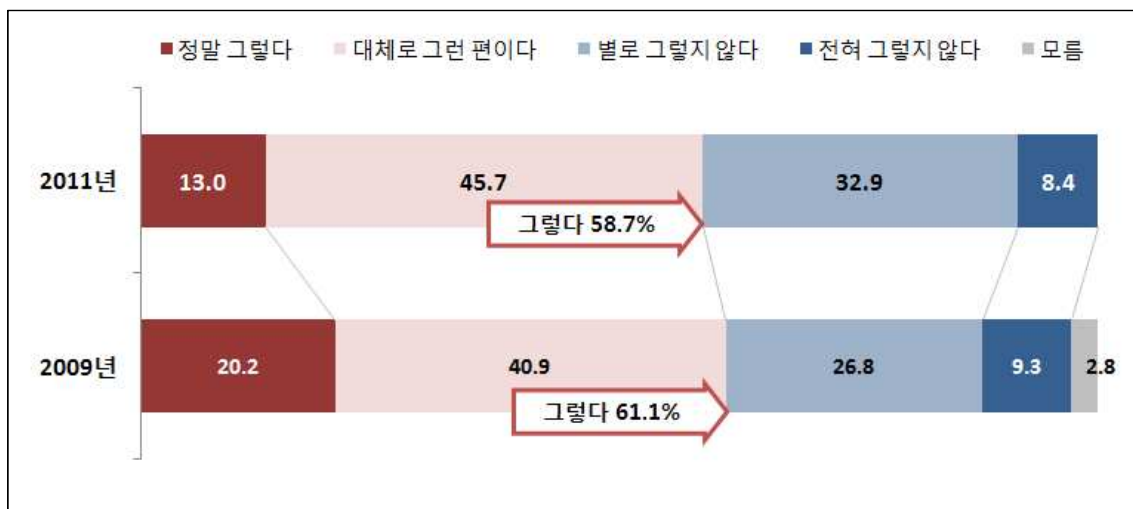
1)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수용에 대한 태도

문10] __님은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림 31>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수용에 대한 태도

(단위: %)



전 체

-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3.0%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5.7%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58.7%가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41.3%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함.
- 2009년에 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5.2% 증가함.

응답자 특성별

-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남자(61.7%), △고졸(61.5%),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임(69.5%), △스트레스 저위험군(6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여자(44.3%), △중졸이하(50.0%), △월가구소득 '400~499만원'(47.6%), △신체적 건강상태가 보통임(43.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30>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수용에 대한 태도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정말 그렇다	②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 전 체 ■	(1000)	13.0	45.7	58.7	32.9	8.4	41.3	100.0
성 별								
남 자	(499)	16.0	45.7	61.7	30.9	7.4	38.3	100.0
여 자	(501)	10.0	45.7	55.7	34.9	9.4	44.3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82)	14.6	35.4	50.0	39.0	11.0	50.0	100.0
고 졸	(478)	14.4	47.1	61.5	30.5	7.9	38.5	100.0
대 재 이 상	(440)	11.1	46.1	57.3	34.3	8.4	42.7	100.0
월 가 구 소 득								
99 만 원 이 하	(29)	24.1	34.5	58.6	34.5	6.9	41.4	100.0
100- 199 만 원	(106)	12.3	47.2	59.4	31.1	9.4	40.6	100.0
200- 299 만 원	(205)	10.7	52.7	63.4	30.7	5.9	36.6	100.0
300- 399 만 원	(191)	12.0	45.5	57.6	36.1	6.3	42.4	100.0
400- 499 만 원	(170)	12.9	39.4	52.4	37.1	10.6	47.6	100.0
500 만원 이 상	(254)	15.0	43.7	58.7	30.7	10.6	41.3	100.0
모 름 / 무응답	(45)	11.1	53.3	64.4	28.9	6.7	35.6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종 은 편	(491)	14.7	45.6	60.3	30.8	9.0	39.7	100.0
보 통	(424)	10.8	45.3	56.1	36.1	7.8	43.9	100.0
종 지 않 은 편	(85)	14.1	48.2	62.4	29.4	8.2	37.6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종 은 편	(604)	13.4	45.5	58.9	32.5	8.6	41.1	100.0
보 통	(337)	11.6	44.8	56.4	35.6	8.0	43.6	100.0
종 지 않 은 편	(59)	16.9	52.5	69.5	22.0	8.5	30.5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 고 위 험 군	(37)	24.3	35.1	59.5	32.4	8.1	40.5	100.0
고 위 험 군	(340)	10.0	46.2	56.2	34.4	9.4	43.8	100.0
위 험 군	(558)	13.1	46.4	59.5	33.5	7.0	40.5	100.0
저 위 험 군	(65)	21.5	43.1	64.6	20.0	15.4	35.4	100.0